OPEN 24 HOURS

24 시간 영업

어서오

서울

OPEN 24 HOURS

“The history of the world is the record of man in quest of his daily bread and butter.”

“The arts are an even better barometer of what is happening in our world than the stock market or the debates in congress.”

- Hendrik Willem van Loon (1882-1944)

Conceived by Jina Park, the exhibition OPEN 24 HOURS includes works by 7 Korean artists capturing unique aspects of Korean entrepreneurship.

Participating artists: Hyung-suk Kim, Han-sam Son, Se-eun An, Joo-eun Lee, Byung-wang Cho, Young-shin Choo, Won-jung Choi.

24 시간 영업

“세계사는 빵과 버터를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기록이다.”

“미술은 증권시장이나 국회 토론 보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훨씬 효과적인 척도이다.”

– 헨드릭 빌렘 반 로온 Hendrik Willem van Loon (1882-1944)

어떤 이는 일을 가능한한 피해야 할 필요악이라고 여긴다. 그런가 하면 역사 속의 여러 위인들은 일은 성공을 향한 필수불가결한 헌신이라고 말했다. 현대인들은 전에 없이 열심히 일하고, 주변의 수많은 비즈니스는 24시간 잠들줄 모르고 계속된다.

2007년 9월 6–20일까지 충무아트홀에서 열리는 “24시간 영업 OPEN 24 HOURS” 전은 21세기 글로벌 경제 속의 오늘 우리나라의 일과 비즈니스의 세계를 7명의 현대 작가들이 제시하는 통찰과 미술 작품을 통해서 숙고해 본다.

전시 참여 작가: 김형석, 손한샘, 이주은, 안세은, 조병왕, 주영신, 최원정 등 총 7인
전시 기획: 박진아

FOREWORD Jina Park

In the eyes of many outsiders the workings of the Korean economy and its sustaining power remain a mystery, if not a myth. Pinched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proves to be uniquely inventive in its tactics of survival despite the peninsula's turbulent history.

In the aftermath of the Japanese imperial rul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Korean War of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agrarian and impoverished South Korea has emerged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on the globe to its 12th largest economy.

In response to its unique position both in place and time, Koreans have developed unique strategies. Koreans live a dichotomy of two major currents: The Confucianist framework with its strict regulations and ways of life, and hypermodernity.

Korea jumped from a pre-modern agrarian society to a hyper-modern, wifi- and mobile phone-connected industrial powerhouse. What happened to values and mindsets? How do people, living in a country of accelerated time, cope? The exhibition finds the key in time and spirit. What holds it all together seems to be an untiring spirit for making business - against all odds.

김밥1줄에1,000원
24시간 영업합니다
모든메뉴를 포장해 드립니다

도입 박진아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여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다. 나날이 급변하고 숨가쁘게 전개되는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 발달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떤 국가와 문화권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매우 독특한 경제적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20 세기 초엽 일본의 제국주의에 이어서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경험한 한국전쟁을 끝으로, 한낱 농경제를 기반으로 한 가난한 북동아시아 국가로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근현대사를 거쳐서 오늘날 각종 산업과 첨단 기술을 기초로 한 세계 12 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렇다면 그같은 한국의 경제 성공의 비결과 원천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하루 24 시간/일주일 7 일/일년 365 일 내내 지치지 않고 일에 투신전념하는 한국인 특유의 노동 정신과 적극적인 생존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열쇄를 지칠줄 모르는 한국인의 사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서 찾는다. 근면과 성실의 미덕을 고무하는 전통적인 유고 사상과 현재 21세기 글로벌 경제이 만나 이루는 독특한 경제 문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어느 나라나 문화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의 생명주기도 매우 빠르고 변화무쌍하다.우리나라 다방면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 경제 활동은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는 급변성, 새로운 마케팅 및 판매 전략과 전술의 변천을 수용 하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하다.

이 전시는 경제 활동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두 분야를 접목시켜서 한국인 특유의 일에 대한 관념을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 그에 대한 통찰과 비평적인 시각을 제시해 본다. 특히 미술 창작 활동과 미술 작품이 새로운 경제 자원이자 통화(currency)로 속속 편입되고 있는 요즘, 현대 미술가들의 눈을 통해서 한국 특유의 경제 현상을 조망해 보고 비평적인 논평을 가해 보는 이 전시는 일반 관객들은 물론 현대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 분야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19 세기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헨드릭 빌렘 반 로온이 지적했던 것처럼 “미술은 증권시장이나 국회 토론 보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월 만에 또다

구간(무광선)
2.8km) 공사
했다. 무광선
을 비롯한 5
경쟁 끝에
이 1개 공구

철도 선진
시작했다.
국철도부와
담회 2회
등 지속적
술과 노하

로 내걸고 내부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전임직원의 60%에 해당하는 900여 명이 국제공인 사업관리전문기술사(PMP)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철도 선진국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관리 전문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철도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연간 70조원 규모의 세계 철도건설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2020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4종4횡으로 2만5000km의 철도를 부설하는 중국시장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철의 실크로드'를 실현, 한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물류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

KTX 2단계 공사가 끝나는 2010년쯤이면 국내외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KTX 2단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명실상부한 '국부(國富)' 창출의 첨병으로 나설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한필기자

WORK THEN, WORK NOW

Concepts of work and business vary from societies to societies, culture to culture. In fact, most people worked nearly all day, all year in the past. But today's idea that Sunday is work-free is a rather modern invention. Traditionally, even devout Christian Europeans opened their shops on Saturdays until noon, and on Sundays. But as the global economy demands more and more flexibility from individuals, the very idea of defined working hours is getting blurred.

When one takes a look at history in the West, the idea of working hours was a security measure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preserve security in city and village from outsiders and outlaws in the community. In Medieval towns, fortress gates shut and curfew bells rang in the evening at 8 or 9 p.m., instructing all working folk such as smiths, brewers, tavern owners, barbers, and cooks to close their premises until the next morning at 4, when the butchers, grocers, and farmers started a new working day at the market.

Strict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opening and closing of business hours in European societies are the idea of social thinkers of the 20th century who fought for the rights and protection of laborers from exploitation by industrialists.

To this day it is strictly prohibited by law in some European countries to open business on Sundays. It is discussed that the "24 Hour Society" is hazardous to human health, deprives individuals of family life, and eventually destroys basic human rights. But won't it eventually be expected by everybody to to be ready to work,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Working times reflect our times. If strict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have been a social achievement of Modern Europe, then the reintroduction of 24 hour working businesses is a sign of the post-modern condition. More and more businesses are focused on offering services and experiences and more customers demand around-the-clock attention. Americans are working more hours with fewer vacations than any other industrialized nation. Japanese and Koreans are working more hours and giving up more holidays than ever.

The globalized economy forces people to work longer than before to stay competitive. In our post-modern, or rather hyper-modern times it seems we are increasingly freeing ourselves from the protective nets of modern labor laws, plunging into the pattern of overwork and being awake around-the-clock.

삼화페인
엑폭시바닥재·옥상방수재·방수발수재 시공
T:742-3211 H.P:019-2
건축용·목공용·공업용·실리
윈샷탄
윈샷탄
청테이프

Mr.Pizza
1577-0077
PRIMA

일, 과거와 현재

박진아

주님이 정한 휴식의 날 – 일과 영업에 대한 관념은 사회와 문화마다 다르고 다양하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일 년의 몇 일 또는 하루 중 몇 시간을 제외하면 생의 대부분을 일에 종사하면서 일하면서 살아왔다. 그나마도 휴식은 종교적인 지시에 따른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예컨대 전통적으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을 주님이 정한 휴식의 날이라고 하여 평소에 종사하던 생업에서 손을 떼고 직업실이나 가게의 문을 닫고 일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교 문화권에서는 토요일을 휴식일로 지켜왔고 그 같은 흔적은 오늘날 주5일 근무제가 일반화된 일부 이슬람권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휴일로 삼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성서의 창세기에는 만물의 창조주가 6일째까지 천지창조의 대업을 완성하고 7일째 되는 날에 편히 쉬며 피조물들을 위한 축복의 기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성서의 천지창조론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상의 논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석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때마다 적절하게 변천했다.

오늘날 유럽을 포함한 구미권에서 일요일은 생업을 멈추고 휴식해야 한다고 믿는 휴일 개념은 20세기 근대의 산물이다. 과거 기독교 유럽인들은 토요일 정오까지 일하고 심지어는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리고 그 같은 현상은 오늘날 또 다시 한 번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자리잡은 21세기 오늘, 경제는 나날이 유동화되어 가고 있고 현대인들의 일은 전에 없는 유연성을 강요받고 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영업 시간과 노동 시간에 대한 관념과 제도적인 통제는 본래 사회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 조치로서의 기능이 더 컸다. 성곽이나 요새로 둘러쳐져 있던 요새 도시나 마을로 구성되어 있던 과거의 공동체는 외부인과 이국인 외에도 마을 내 범죄자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했다.

과거 유럽의 중세 도시들은 매일 저녁 8시나 9시 즈음이면 성채 출입문을 일체 폐쇄하고 통행 금지종을 울려서 마을 내외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통행 금지종이 울린다 함은 일부 고위 신분의 귀족들이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한 대장장이, 이발사, 요리사, 백정, 거리 상점을 포함한 모든 작업장과 상점은 문을 닫아야 했다. 특히 양조장이나 술을 파는 주점 같이 방탕의 소굴이 될 수 있는 장사는 영업 시간을 더 엄격하게 제한받았다. 오늘날처럼 전기 공급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과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른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영업시간은 푸주한, 야채장수, 농부들이 마을 시장에서 장물을 내다 팔기 시작한 새벽 4시 경에 다시 시작되었다.

경우는 우리나라 옛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여서, 조선의 임금은 사월초파일 밤 이틀을 제외한 일 년 내내 밤 10시 통금령을 내렸는데 이 또한 한양 성문 안

팎의 도적들과 야생 동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안전이 그 명분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부터 1982년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인들이 37년 동안 경험했던 자정시간 야간통행금지령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 보안이 이유였다.

과도한 일은 사회악 – 오늘날 여러 산업화된 사회에서 준수되고 있는 일일 8시간/주40시간 이하 업무 시간제와 영업 시간 규정은 20세기 근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이룩한 성취의 결과였다. 19세기 말 영국 산업혁명기 자본주의 산업가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과로와 노동 착취에 대한 우려는 이미 칼 맑스의 <자본론>에서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과거 한 세기에 걸친 기간 동안 노동자와 직장 피고용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증진시켜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공공 관청, 사기업, 상점들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명시된 근무 시간과 영업 시간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특별히 허가된 업종이나 영업 시간을 제외하면 주말과 공휴일 영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잠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돌아가는 이른바 “24시간 사회(24 Hour Society)”는 건강에 해롭고 사생활과 가족의 행복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점점 일요일을 비롯한 휴일에 쇼핑을 하고 외식을 하며 여가를 누리고 싶어 한다. 정보 통신이나 지식 분야의 신종 산업 분야에서는 나날이 명확하게 규정된 시간 외 일을 하고 자연이 하루중 일하는 시간은 기존의 나인투파이브 규정을 넘는 초과 업무와 야근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거의 엄격한 영업 시간 규정은 변화와 융통성을 요하게 되었다.

세롭게 변하고 있는 일의 세계 – 나인투파이브(9 to 5)인가 아니면 24/7인가? 전자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막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때와 장소에 구애받기 싫어하는 소비자나 하루 중 아무때난 소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특수 직업인들을 위한 편이 제도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엄격한 노동 시간 및 영업 시간 규제가 국가 단위 근대 유럽의 사회적 성취라고 한다면, 최근 우리 주변에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24시간 비즈니스 현상은 글로벌 경제가 지배하는 21세기 후기 근대적 사회의 징후이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세계 최고의 노동 효율성을 자랑하는 선진 산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긴 일일 노동 시간과 짧은 휴가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동서를 막론하고 글로벌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요즘, 10여 전에 비교해 볼 때 분명 현대인들은 전에 없이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보내면서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경쟁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을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해 졌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OPEN
OPEN
OPEN
SALE
SALE
입이 즐거운 상상 -
해태제과

점차 우리의 경제 체제는 하루 24시간/일주일 7일 태세로 접어들고 있다. 후기 근대 혹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초현대(Hyper-modern)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더 긴 시간과 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점차 하루 내내 잠들지 못하는 24시간 사회 속으로 자연스럽게 몰입해 가고 있다.

현대판 노예주의인가 현대적 유연성인가? – 일 속에 담긴 두 얼굴 과연 오늘날 우리 생활 환경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24시간 사회는 결국 24시간 노동과 잠들지 못하는 몽유병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인가? 아니면, 24시간 사회는 기존의 각종 비즈니스에 보다 많은 이윤 기회와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줄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든 24시간 사회는 어떤이들에게는 더 길고 고된 "노동"을 뜻 할 것이며 또 다른이들이게는 편리한 "여가 환경"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사회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 뉴욕, 라스베가스, 도쿄, 홍콩, 그리고 서울 … 세계의 잠들지 않는 도시들은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며 소위 '잠들지 않는 도시'라 하여 도시 전체가 그러한 것도 아니다. 이들 도시들 중에서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정해진 구역에 한해서 이루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은행업, 의료업, 인터넷, 정보통신, 숙박 요식업 등 특정 전문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24시간 일문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닌가? – 문명이 인간을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을 지언정 인간이 창조한 정치적 권력과 전쟁의 핍박 같은 사회적인 운명으로부터 건져내 주지는 못했다. 하루 7–8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잘 수 있는 수면의 권리는 노동의 권리, 인간 기본권의 권리를 창안해 낸 20세기 근대의 산물이었을 뿐, 인류는 과거 역사 대부분 수시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으로 시달려 왔다.

선사 시대부터 인간의 조상들은 외부 자연으로부터 가해오는 맹수의 공격, 자연 재해 심지어 동굴 모닥불 지키기에 이르기까지 하루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틈틈히 새우잠을 잤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귀족들과 시민들은 반낮 구분없이 사교와 외교에 임했다. 로마 시대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대표적인 24시간 태세의 사회였다. 생업에 바빴던 고대 로마시민들은 공중탕에서 목욕과 단잠으로 부족한 수면을 보충했다.

근대적인 교통수단과 통신체제가 발명되기 시작한 19세기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농수산품을 교환하고 대량 식료품 생산을 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잔치' 아니면 기아" 상태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하루 세끼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하루 5–7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정기적인 수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가 점차 24시간 노동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고 있는 요즘, 전에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해진 시간 보다 오래 업무에 임한다거나 늦

은 시간까지 사무실과 일터를 지키는 일이 빈번해졌다. 예컨대 보안 및 경비직은 역사적 과거로부터 이어온 가장 전통적인 야간 직종이라 할 수 있는데, 24시간 사회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특히 현대에 와서 다시 한 번 역사를 통틀어 가장 일관적인 24시간 대세의 직종임을 입증하고 있다.

전자통신의 디지털화가 되기 직전 20세기 전반기까지 통신업계의 꽃이었던 전화 교환원들은 밤낮없이 교대로 일했다. 예나지금나 병원의 응급실과 당직 의사들은 밤근무를 하고 있고, 물품을 제때 운반해야 하는 트럭 운송 기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속도로을 질주하고 있으며, 유흥가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은 늦은 밤과 이튿날 이른 새벽까지 긴장을 놓치 않고 직업에 임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창조적 직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글로벌 시대 속에서 금융업과 자유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잠들고 고요한 밤을 틈타 일하기를 선호하기도 한다.

24시간 사회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현재 우리 주변에 뚜렷하게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인 것은 언제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진정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몸이 깨어 있는 것에 못지 않게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함께 깨어있는가일 것이다.

“잠들어 있고 깨어 움직이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냐 아니면 우리의 몸이냐, 혹은 둘 다 함께 이냐이다. 그리고 깨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어느 부분과 우리 영혼의 어느 부분이 깨어 있는가가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잠과 불면에 관하여 한 말.

/Room/ Han-sam Son

Model Houses Series

The unsuspecting tourist coming to Seoul will realize that there seem to be more rooms in Korea than elsewhere. PC rooms (Internet cafes, a breeding ground for some of the world's top professional computer gamers), Norae Bang (Karaoke rooms), Chimjil rooms (sauna rooms), DVD rooms, Love Hotel rooms are advertised at every corner. Korea seems to be a culture of rooms and people in transit in between them, in transit in between public affirmation and private needs. With this observation in mind the exhibition starts off with rooms created by Han-sam Son.

Korean traditional houses were composed of rooms as social concepts rather than rooms as functional spaces. Rooms are designated by who stays in them rather than by their functional purposes. A traditional room served a multitude of functions from being a bedroom to dining room or even washing room. It is a functionally flexible, but socially fixed space, serving distinctive social and spiritual functions reflecting the fabric of society. There are An Bang (female master's room), Sarang Bang (male masters reading room), Gyu Bang (women's handicrafts room), Hengrang Bang (workers' sleeping room), and Sawoo Bang (Ancestor-worship shrine room).

As an artist who observes every experiences taking place in various ideas and forms of spaces, Han-sam Son has been creating rectangular rooms made with old scrap paper since 2000 during his study and residency in New York. For Son, a room has been an intriguing spatial concept, a half-closed private space as well as half-open public space, as if commenting on Korea's unique and widely successful "room" industries.

For the exhibition, Son presents his latest "Model Houses" series to comment o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oom which has been sweeping Korea in the last years. Made to allure applicants for new home owners-to-be, model houses are constructed as glitzy luxury spaces only to be demolished soon after. Relying on meticulous handicraft, the artist makes a commentary on the transience of the real estate businesses.

Model House series installation view, from left to right, Model House - Brand Name, Model House - Luxury(back), Model House - Premium /Interior view of Model House/ Design Icons, cardboard paper, 2007

HANDLE WITH CARE

/방/ 손한샘

모델하우스 –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 명품, 모델하우스 –럭셔리

“내가 살고 있는 장소와 그 곳의 환경 속에서 겪는 일상적인 경험은 내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장소와 환경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현재 거주하는 사회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 손한샘

손한샘은 줄곧 개인적으로 밀폐된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으로서의 정방형의 방과 잘 모르는 여러 타인 들이 모여드는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방 사이의 미묘한 분리와 침범의 관계를 모색해 왔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밀폐된 공공의 서비스 공간들을 작은 사각형 종이 조각들이 모인 거대한 설치 공간으로 형상화해왔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업 공간의 기능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공의 장소를 찾아든다. 예컨대 노래방, PC방, 찜질방과 같은 공간들은 개인이 각자의 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여드는 공공 공간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번 24시간 영업 전시에서 손한샘은 박스 포장에 흔히 사용되는 폐 골판지를 소재로 한 모델하우스 시리즈와 실내 인테리어 아이템들을 선보인다. “모델하우스” 시리즈는 일본의 노숙자들이 짓고 사는 종이로 지은 집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종이라는 망가지기 쉽지만 집없는 떠돌이가 덧없고 고단한 도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외부세계로부터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

또 그런가 하면 현대 사회는 실제보다 보다 우월한 환경과 상품을 약속하는 온갖 광고와 마케팅 전략이 난무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특히 작가는 최근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에서 난무하고 있는 명품 아파트 트렌드를 포착하여 풍자한다. “모델하우스–명품” “모델하우스–럭셔리” “모델하우스– 프리미엄” 시리즈를 통해서 손함샘은 아파트 분양 초기 고객 유치에 활용되고 있는 모델하우스가 실은 보기좋게 지어졌다가 분양 유치가 끝나자마자 허물어져 흔적없이 사라지고 마는 덧없고 일시적인 상업 공간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손한샘 <모델하우스 – 명품> , <모델하우스 – 럭셔리>, <모델하우스 –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 프리미엄>과 <모델하우스 – 명품>의 내부 광경 (이전 페이지 차례로)/ <인테리어 아이콘> 폐 골판지, 2007년 (왼쪽)

/Somnambulism/ Hyung-suk Kim

Welcome and Blow-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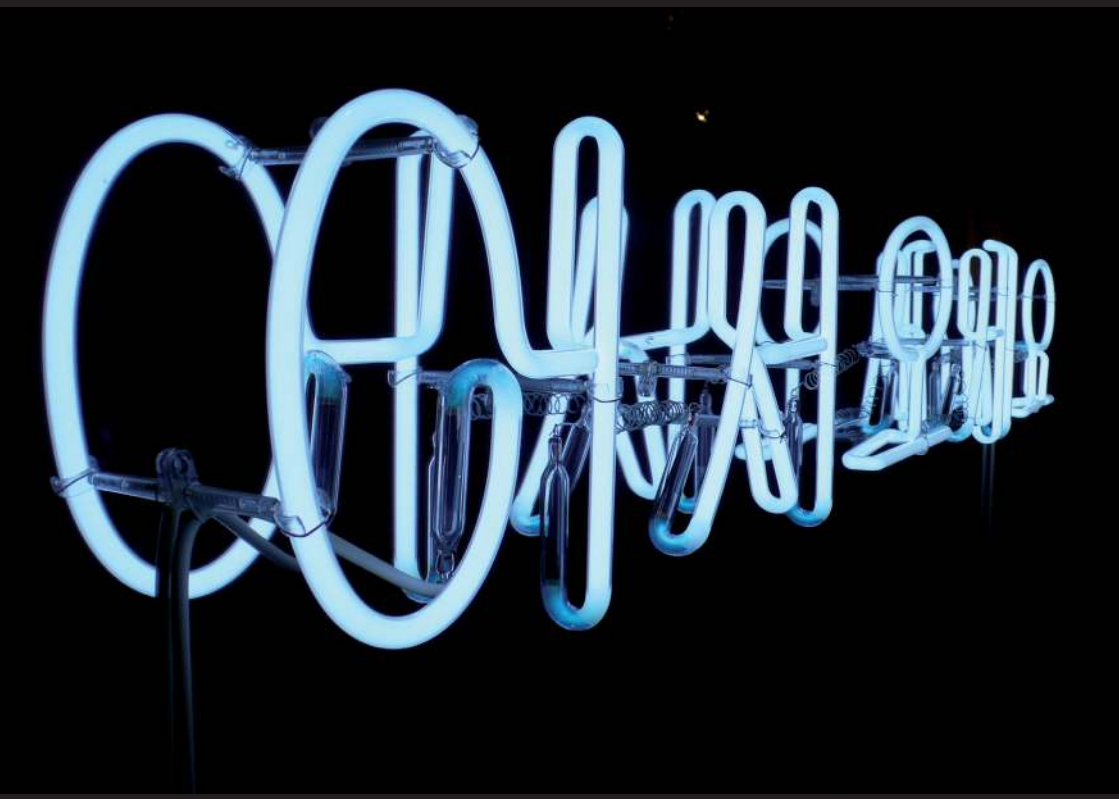
In the past decade, Hyung-suk Kim has been working primarilly with signs found in the everyday urban landscape as a weapon for his critical observation on the ways of life in Korea.

For this exhibition, he captured the aesthetics of booming late night adult entertainment businesses, PC game rooms, and horse race gambling rooms. Entitled “Blow up”, his 3-part drawings took on advertisements typically found in cheap boulevard newspapers and street adverts.

Kim’s works are augmented with a neon-light box with the signage “Welcome”, with which the artist comments that his installation is a metaphor of Seoul in the state of mobile somnambulism driven by 24 hour-operating businesses.

Hyung-suk Kim, Blow up, print and drawing on paper, 2007 (Right)
Hyung-suk Kim, Welcome, neon and mirror, 2007 (Next page)

LOOK & JOY
24시성인PC게임
010-8691-3722
ACE NET ASCOT
ACE NET (24시간) 1인 1일 1회한정



/몽유병/ 김형석

어서오세요와 Blow Up

김형석은 딱지, 신문, 잡지, 간판, 상업 로고 등과 같은 일상 도회지 소비 문화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사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업해 왔다. 과거와 현대, 고급미술 이미지와 대중적 키치를 오가며 현대인들을 둘러싼 대중 소비 문화를 유쾌하면서도 비평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해 온 그는 최근 현대 소비사회가 현대인의 외로움과 정처없음을 달래주는 대체 종교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 김형석은 성공을 위해서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깨어있을 것을 강요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그 같은 사회 환경을 틈타 고안된 기발한 심야 사업 아이디어를 점검해 본다. 이른바 감성 마케팅이 한껏 활용되는 현대 비즈니스 문화와 무차별로 남발되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라는 상투적인 인사에서 심정적 안심을 얻는 현대인들 – 우리나라의 한 편의점 체인의 상표 미학을 빌어 전시장 입구에 거울과 네온 조명으로 설치한 <어서오세요>는 마치 심야 상점이나 밤업소가 편의와 욕망해소를 찾는 정처없는 밤거리 손님을 받기듯 전시장 관객의 심기를 건드려 보는 실험을 시도한다.

또 김형석은 현대인들을 하루종일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소비주의 문화를 3편의 인쇄 및 드로잉 연작 <Blow Up>을 통해서 지적한다. 성, PC방, 경마 등 특히 날이 어둑해 지기 시작하면 기지개를 켜고 도시인들을 유혹하는 심야 산업에 대한 논평을 작가는 거리의 벽광고나 3류 신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조잡한 흑백 박스 광고의 미학을 빌어 재현했다.

하루 일과에 바쁜 현대인들은 심야의 유흥 거리에서 일상의 애환과 억눌린 욕망을 해소해 보려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진정한 휴식 대신에 24시간 동안 잠들지 못한채 어두운 서울 거리 한 귀퉁이에서 잠 못이루고 배회하는 몽유병 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형석의 이 두 작품은 잠들지 못하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24시간 깨어있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형석 <Blow up>, 종이에 프린트와 드로잉, 2007년 (이전 페이지)
김형석 <어서오세요> 시트지와 네온 조명 설치, 2007년 (왼쪽)

/Delivery/

Se-eun An

Disposable Identity and Delivery

Se-eun An takes on the culture of instantaneousness in Korean societiy today and turns it into the issue of her artistic commentary. How do contemporary Koreans preserve their individual identities and personal memories in times when numbers and bar codes have come to replace individuals?

An's "Disposable Identity", an installation with Korean snack packagings, point out that despite the increasing anonymity of contemporary life individuals strive to preserve their own identity through personal memories.

An likes to create her works in site-specific contexts. For <Disposable Identity>, the artist stamped numbers used as personal identification such as mobile telephone numbers, citizen ID numbers, bank account numbers, etc. as codes of personal identity and memory.

Also covered with numerous stamped numbers, <Delivery> appropriates the famous aluminum delivery box used by many Chinese restaurants in Korea. The delivery box, or more commonly known as "iron bag", is a typical Korean symbol of speedy and efficient service industry.

Se-eun An, Disposable Identity, mixed media, installation, 2007 (Right)
Se-eun An, Delivery, installation, 2007 (Next page)

새우깡

/배달/ 안세은

일회용 자아와 배달

레디메이드 이미지를 직접 활용하거나 재가공하여 활용해 안세은은 이번 전시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물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논평을 시도한다. 예컨대 <배달>은 한국인의 가장 대중적인 식사를 제공해 온 중국음식점의 배달용 철가방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번호가 찍힌 각양각색의 시트와 다이모를 덧붙여 완성한 작품이다.

요리를 하기 힘든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끼니를 때우거나 순간적인 허기를 채워야 할 때 즐겨 먹는 중국 음식의 인스턴트성은 중국집 배달 가방과 그 위에 다이모로 찍혀 있는 수많은 중국집 전화번호들로 형상화되었다. '빨리빨리'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중국음식, 전화번호,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들의 신속한 배달 서비스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24시간 사회를 가능케 해 주는 우리나라 특유의 경제적 뒷바침이자 한국 근대사가 낳은 문화 유물이다.

숨가쁜 인스턴트 문화 속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이를 대항하고 소화하며 살고 있을까? 안세은은 <일회용 자아> 속에 사용된 수많은 새우깡 봉지들과 그 위에 다이모로 박은 숫자들을 통해서 자칫 익명으로 희미해져가는 개인들 조차 저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개인사가 있음을 역설한다. 새우깡이 [작가 안세은이 태어난 해인] 1971년에 처음 생산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점, 학생 시절 번호,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주소, 은행 계좌 등 작가는 다이모에 자신의 개인사에서 소중했던 기억을 차지하고 있는 의미있는 숫자들을 통해서 한낱 일련의 번호 뒤에 숨은 듯한 개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기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어쩌면 안세은은 많은 현대인들이 익명의 초현대 사회 속에서 그들의 자아 정체성과 기억을 보존하는 법을 대변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세은 <배달 Delivery> 철가방에 시트지와 다이모, 2007년 (왼족)
안세은 <일회용 자아 Disposable Identity> 혼합 재료, 2007년 (이전 페이지)

/Beyond the Horizon/ Won-jung Choi

Beyond the Horizon

More and more large discount supermarket chains are operating 24 hours. Fast food chains and street snack bars such as Gimbap-jip and Bunshik-jip are teeming with late night and early morning shift workers.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drives post-modern Koreans to surf the city, spend more, and work longer hours.

Since the 1980s, a busy and bustling cityscape characterized by automobiles in traffic jams and vigorous consumption has become the way of life. It is reported that average Seoulites spend 3-4 hours every day for commuting to work, as the boundary of Seoul keeps expanding and more people are driven out into satellite cities for cheaper housings and real estate prospects.

Won-jung Choi narrates a story of Seoul urbanites caught in the hustle and bustle of Seoul. The artist, who used to turn her experience of lost time in tedious transit hours into a romantic flow of surrealistic video images in previous works, here is an observer of a downtown street. Mirror tiles installed on walls and floor highten the spectacular visual effect of the work.

Won-jung Choi, Beyond the Horizon, computer animation and mirror installation, variable size (Chungmu Art Hall installation: width 5m x height 2.8m x depth 4m), 2007 (Next page)

/지평선 너머/ 최원정

지평선 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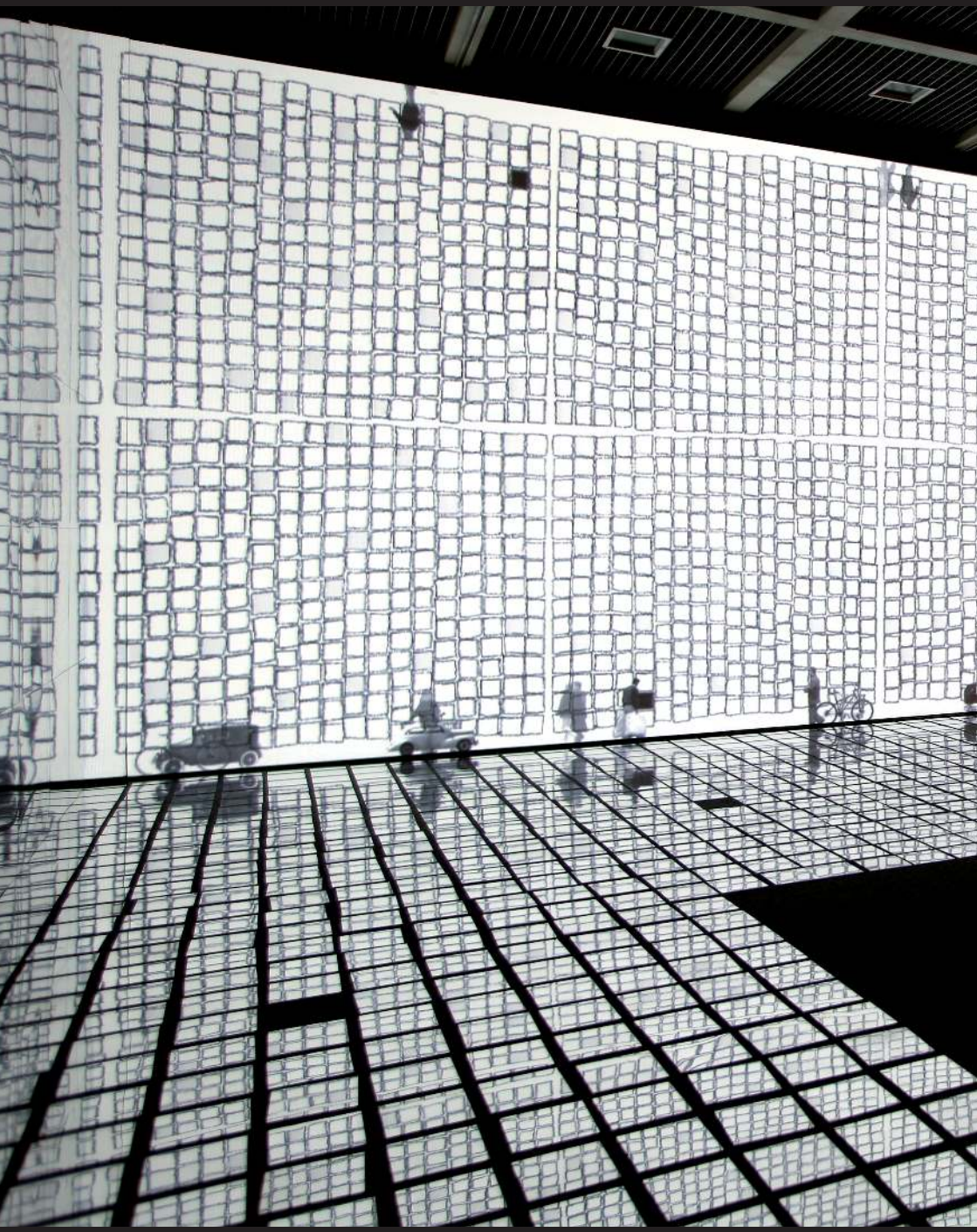
과거 출발지와 목적지를 오고가는 소모적인 시간, 부재 시간, 진공의 시간을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해 초현실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 온 최원정은 이번 24시간 영업 전에서 <지평선 너머(Beyond the Horizon)>을 통해서 숨가쁜 "서울의 24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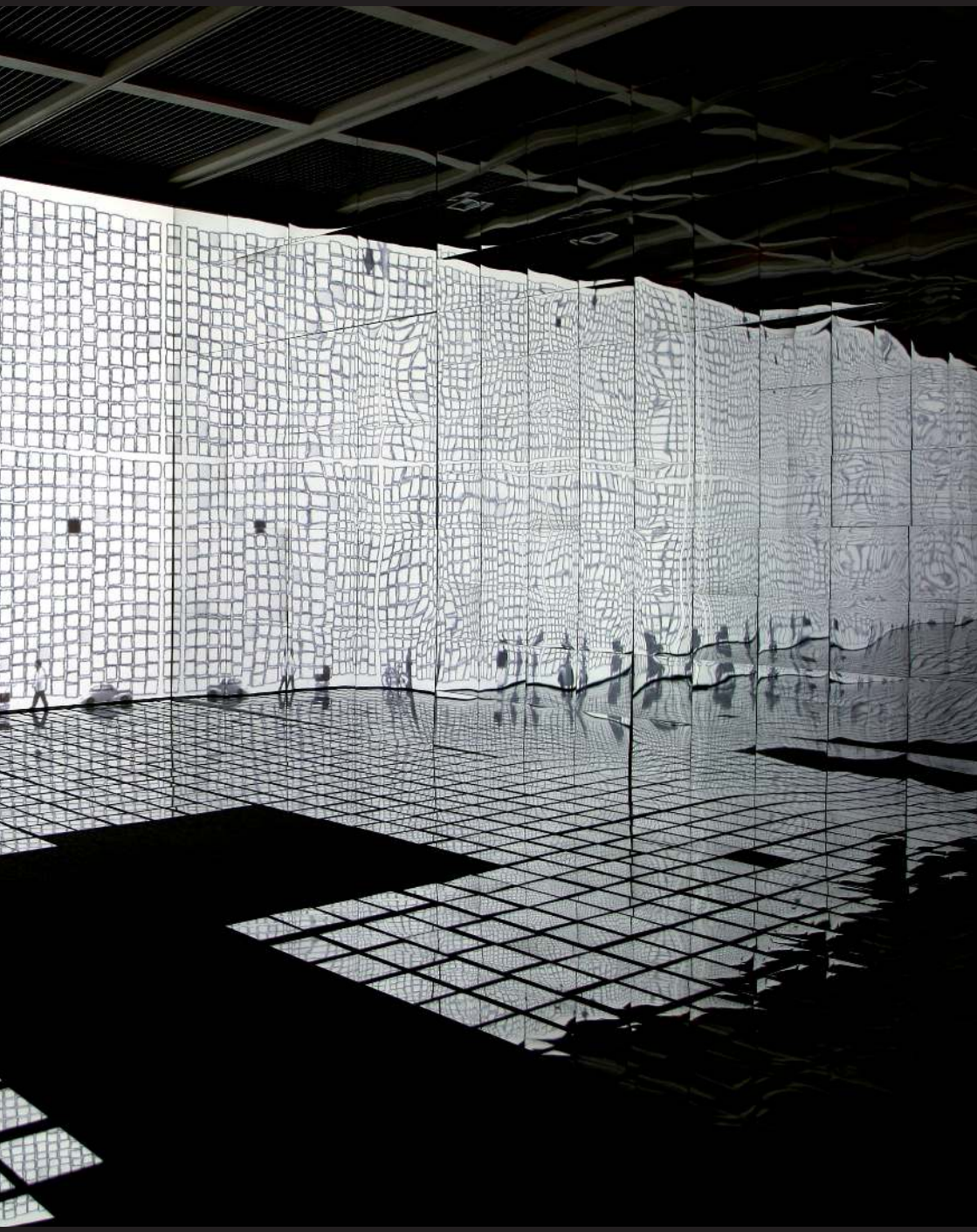
건물과 사람들로 빼곡하게 들어찬 회색 도시 서울, 러시아워가 따로 없는 만성화된 교통 체증의 도시 서울, 근원을 알 수 없지만 지치지 않고 도심을 오가며 일하고 교류하고 소비하며 움직이는 도시인들로 가득한 서울 – 그 속의 현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듯한 각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 서울을 사는 도시인들이 24시간 뿜어내는 에너지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군중 속의 강박감을 작가 최원정은 <지평선 너머>로 형상화했다.

현대인들은 싫든 좋든 하루 일상중 많은 시간을 거대한 서울 메트로폴리스를 연결하는 교통망, 건물과 지하도, 교통 체증, 익명의 군중 속에 갇혀 그 속을 헤엄치며 시간을 보낸다. 욕망의 충족 보다는 밀폐, 감금, 인내의 공간으로서 현대인을 엄습하는 도심 공간 속에서 현대인들은 목적지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소비하면서 일상을 반복한다.

작가는 희색 종이 위에 작은 사각형 블럭들로 은유되는 도시의 밀집된 형세와 그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도시인과 소비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환시켜서 소모적이고 분주한 현실을 상상과 환상의 공간으로 승화시킨다. 세심하게 고안된 비디오 영상과 양옆 두 벽 및 바닥에 설치되어 반짝거리는 작은 사각형 유리판 설치물은 어두운 암실 내벽과 대조를 이루며 도시인들이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생명력 즉, "찰나적인 희망"을 반영한다.

최원정 <지평선 너머>,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거울 설치 (가변 크기, 충무 아트홀 설치: 가로 5m x 세로 2.8m x 깊이 4m), 2007년 (다음 페이지)





/Landscaping the Contemporary/ Joo-eun Lee

Placardscape and The Moon Rises

Joo-eun Lee has been working to capture seemingly ephemeral moments and objects from everyday events. Presenting “Placardscape” and “The Moon Rises“ for this exhibition, the artist observes the Seoul cityscape flooded with street signs and signages that penetrate the visual lives of people 24 hours non-stop.

What are some of the indispensible objects and experiences with which contemporary Korean people cannot live without? With mobile telephones, the internet, digital cameras, cables, and batteries designed to fit and channel electricity into various electrical gadgets, Joo-eun Lee captures the insistant presence of 24 hour-illuminated street signages promising to offer various goods and services to millions of passers-by in the busy commercial streets.

“Since the last couple of decades or so [since the lifting of the curfew in 1982], it has become virtually impossible to see the moon or the stars in the night sky. Nowadays, brighly lit street signs have replaced the old moonshine,” says the artist. Signboards and placards have become the contemporary replacement of the sky.

The artist exploits the notion that signs and signages are typically contemporary comunication tools, just as contemporary mobile electronic devices have become indispensible for everyday lives of people. As with her previous works, “Placardscape” and “The Moon Rises “ intend to capture fleeting moments of a fast-paced life.

Joo-eun Lee, The Moon Rises , neon signboard, 2007 (Right)
Joo-eun Lee, Placardscape, installation view. printed plancard, 2007 (Next page)

안경 콘택트
콘타인
우리 멸 칼국수 보쌈 족발
PC
3F

/컨템포러리 풍경화/ 이주은

현수막 풍경화와 달이 뜨다

일 상 속에서 발견되는 일시적인 순간으로부터 세부적 아름다움을 포착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온 작가 이주은은 이번 24시간 영업 전에서 도시 속의 현대인이 거리 곳곳에서 접하게 되는 거리 간판의 현대적 의미를 <현수막 풍경화>와 <달이 뜨다> 두 작품을 통해서 점검해 본다.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만연해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당연한 도시 일상 환경의 일부가 된 거리의 간판들은 거리를 오가는 보행자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다. 독특한 서체, 두드러진 색상과 크기, 보는이의 관심을 사로잡는 독특한 이름에 이르기까지 간판들은 보행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한다. 이동전화기, 디지틀 카메라, 인터넷 등 현대인들이 현대 생활 속에서 24시간 필요로 하는 전기 통신 기기 외에도 작가 이주은는 거리의 전기 네온 간판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현대적 의사소통의 매개체임을 지적한다.

“밤새도록 간판들이 내뿜는 네온빛 때문에 밤에 달과 별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거리의 간판들은 어두운 밤 하늘의 달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 – 작가 이주은은 <달이 뜨다>를 제작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날 거리의 간판은 과거 아름다운 밤하늘 속 달을 대체해 버린 은유라고 말한다.

당연시되어 버린 일상화된 사물들을 이주은은 마치 숨은 그림찾기를 하듯 찾고 수집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작가만의 언어 사전을 특유의 감각적인 스타일로 시각화한다.

이주은 <현수막 풍경화> 현수막에 인쇄, 2007년와 (왼쪽)
이주은 <달이 뜨다> 네온 형광판, 2007년. <달이 뜨다)> 세부 (이전 페이지)

/Addiction/ Young-shin 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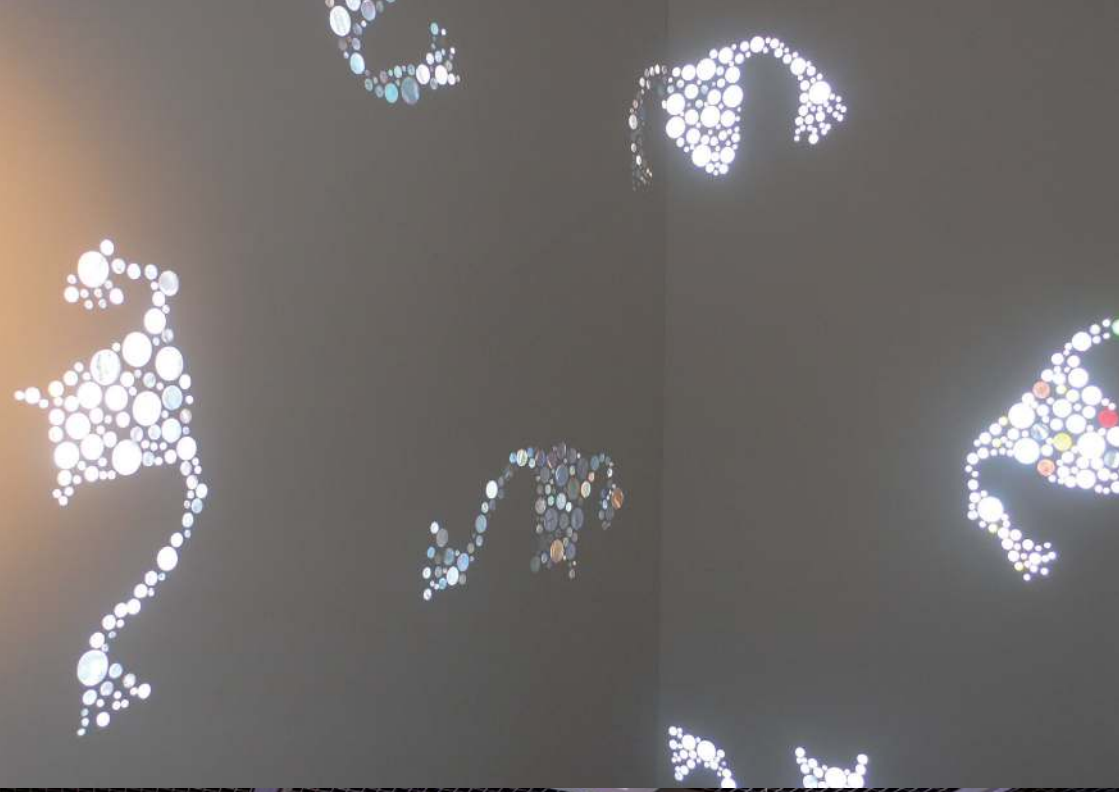
Addiction and I Wish You a Pleasant Shopping

Young-shin Joo has been exploring intimacy and the estrangement of human bodies with paint and mixed media since the mid-1990s. For this exhibition, the artist pokes fun at contemporary consumers' constant state of desire for consumption and its disguise as false comfort and relaxation.

In an attempt to blur the boundary between art and design, Joo, for the exhibition, has created the room <I Wish You a Pleasant Shopping>, an installation meant to create an artificial relaxation place, featuring dysfunctional hammocks and foldable chairs. Visitors are encouraged to touch and interact with her works, only to realize its pretentious invitation. <Addiction - Nobody Should Just Run Out and Start Buying> features various states of the brains and hearts of exultated consumers, triggered by consumption desires. "Dopamine, the pleasure hormone released when you see something you want to buy, is driving the addictive feelings for consumption," says the artist.

The artist often discovers ingenious commercial ideas and innovations in contemporary commercial areas. During the exhibition, the artist will also decorate walls and other works of art with advertiments for her new "24 Hour Portrait Painter" business titled "Wedge." For this performace, the artist walks around the exhibition hall and attaches self-printed adhesive advertisement stickers – symbols of intrusion, or "wedges" into other people's space - onto or near other exhibiting artists' works a la sticker adverts and promotions found in many corners of Seoul´s streets.

Young-shin Joo, Addiction - Nobody Shoudl Just Run Out and Start buying, installation, 2007 (Right)
Young-shin Joo, I Wish You a Pleasant Shopping, installation, 2007 (Next page)



/중독/ 주영신

중독과 편안한 쇼핑되세요

주영신은 안긴의 신체 특히 해부학적 이미지들과 그것들이 인간의 감성에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업해 오고 있는 작가이다. 이번 24시간 영업 전을 기하여 작가는 24시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현대 소비주의 세태를 미술 작품을 통해 논평한다. 소비주의 문화는 인간의 신체 내부에 어떤 자극과 변화를 끼칠까? 작가는 소비주의 시대의 현대인의 물적 욕망을 뇌와 심장의 이미지, 그리고 쉬고 싶지만 제대로 쉴 수 없는 정처없음을 자궁의 이미지를 빌어 형상화한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영해 있는 요즘, 사람들은 쇼핑을 통해서 욕구를 만족시키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 사람들은 맘에 들는 물건을 보면 흥분하고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못 견디지요.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은 그같은 순간에 뇌에서 도파민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것이 곧 심장으로 전달되어 심작 박동을 빠르게 하여 흥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소비주의를 도파민이 분비된 다양한 단계의 뇌와 심장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해 보려 했습니다.”라고 작가 주영신는 말한다.

진정 작가의 말처럼 현대인들은 육체와 정신이 24시간 사회의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일까? 작가의 <중독 – Nobody Should Just Run Out and Start Buying>은 뇌와 심장이라는 두 중추적인 인체 장기가 자본주의 사회가 장려하는 소비주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편안한 쇼핑되세요>에 등장하는 연약해 보이는 사용불능의 해먹은 언뜻 쉴 곳처럼 보이지만 실은 앉을수도 머물수도 없는 가짜 휴식 공간들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다.

주영신 <중독> (부제: Nobody Should Just Run Out and Start Buying), 혼합 재료 설치, 2007년 (이전 페이지)
주영신 <편안한 쇼핑되세요> 혼합 재료 설치, 2007년 (왼쪽)

/Human Recharging Machine/ Byungwang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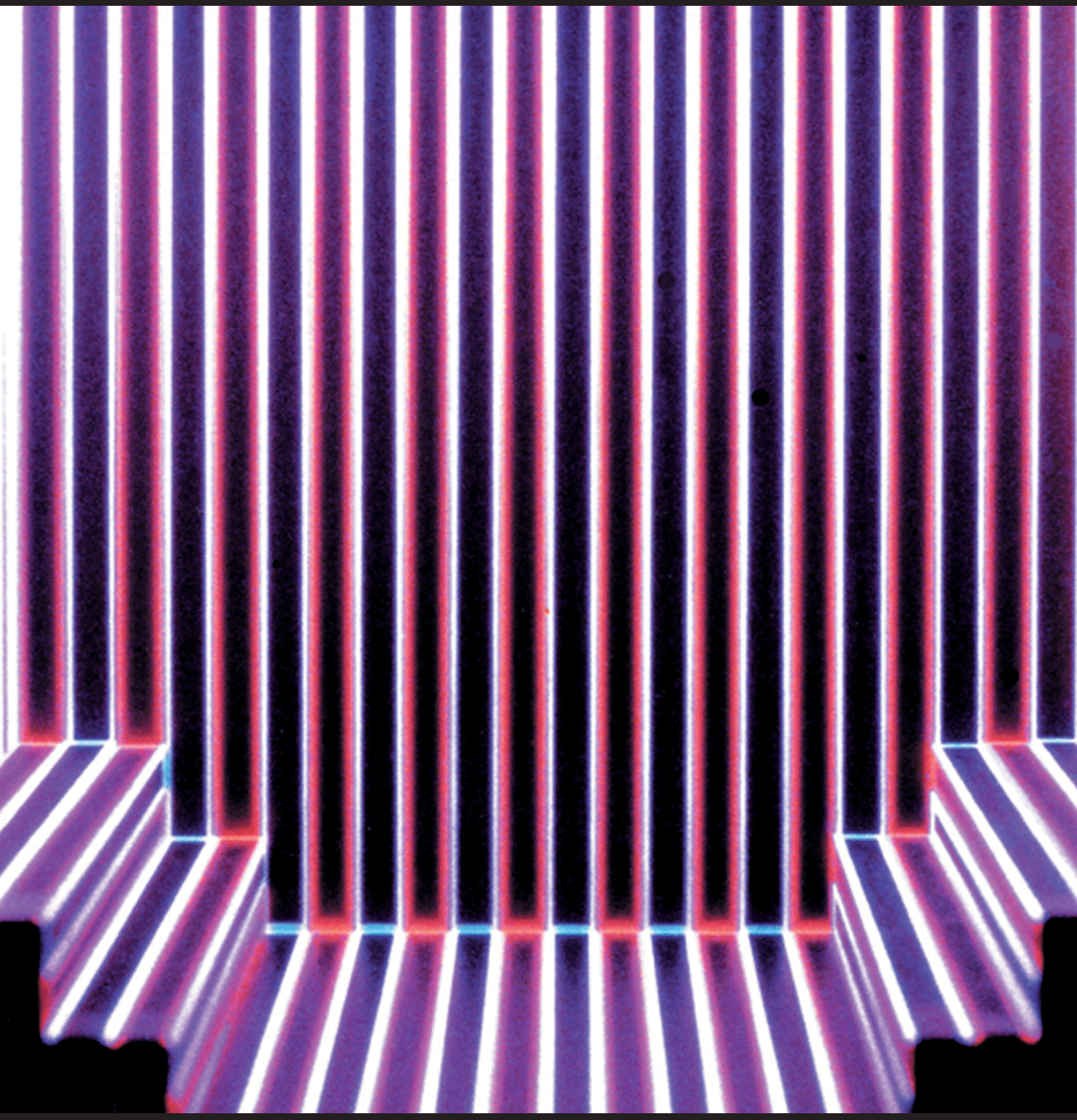
Twins

The exhibition ends with yet another room where personal needs and public interest meet – the Chimjil Bang, or “public sauna room”. Byung-wang Cho, who has been experimenting with sharp red lightings in dark rooms for the past years, has been creating a room that simulates a public sauna room, a typically Korean public and commercial space for physical and mental relaxation and regeneration for people of all walks of life.

It is a well-known Korean business cliché that most businesses are made in the sauna houses after a generous lunch treat between business parties. Sauna houses are also multi-entertainment spaces equipped with internet cafes, restaurants, hair and nail salons, massage rooms and fashion boutiques. As sauna rooms in public bath houses are operated 24 hours, they have replaced traditional affordable accommodation facilities such as “yogwans” and hostels, catering to people in need of not only a quick power nap but also an instant overnight stay.

For this exhibition, Cho has re-created a pair of empty paint containers. While his former “Recharging Machine” series, in which a dark and steamy sauna room turned into a human energy recharging machine, created a strange poetry for people on the run, <Twins>, reduced to a couple of empty tin cans, makes a metaphorical comment on our 24 hour society bleeding with exhaustion and hollowness.

Byung-wang Cho, Zzimzilbang I, installation, 2006 (Right)
Byung-wang Cho, Twins, acrylic paint on tin cans, installation, 2007 (Next Page)



/인간 충전기/ 조병왕

쌍둥이

검정색으로 어둡게 밀폐된 방 속에 적색 네온 라이트를 재료로 한 설치작업을 주로 해 온 조병왕은 3차원의 나무 구조로 제작한 후 다시 2차원의 사진으로 전환하는 제작방법을 사용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땀을 냄으로써 하루의 피곤을 풀며 원기를 되찾을 수 있는 찜질방의 은유인 ‘ 충전방’ 연작을 해 온 작가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며 임시적인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한국적인 ‘방’임과 동시에 쉴새 없이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은유하고 있다.

찜질방이 바 쁜 현대인들이 바쁜 틈을 이용하여 몸을 씻고 모라는 잠을 보충하는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번 전시에 출품된 <Twins>는 바쁜 일상과 오랜 노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상에 임해야 하는 지치고 공허해진 현대인들의 내면적 초상을 한 쌍의 텅 빈 페이트통에 빗대어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시사하듯 쌍둥이 처럼 한 쌍으로 나란히 서 있는 텅 빈 두 페인트 통은 밤낮 할 것 없이 일하고 쉬지 못하여 지친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일까? 또 그런가 하면 흑색 바탕에 적색 물감 흘리기 효과는 에너지가 고갈된 한 쌍의 건전지의 은유는 아닐까?

조병왕 <찜질방 I> 설치, 2006년 (앞 페이지)
조병왕 <쌍둥이 (Twins)> 페인트통에 아크릴릭 물감, 2007년 (왼쪽)

Artist Interviews
작가 인터뷰

손한샘
Room
박: 오늘날 현대인들은 뉴미디어가 대중 문화는 물론 일상 업무 환경과 미술계의 보편화된 매체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종이를 매체로 삼아 작업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지금 종이에 대한 당신의 철학이나 견해는 얼마나 어떻게 변했나/또는 변하지 않았나?
손 :종이는 다루기가 쉽고, 특히 골판지의 경우 투박함을 표현하기에 좋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재료보다 파손이 잘 되므로 우연적인 효과와 상황을 드러내기에 좋다. 지금까지 나는 종이를 재료로서만 접근해 왔는데 앞으로는 폐지에 인쇄된 문자, 숫자, 기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까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박: 종이는 잘 관리하면 오랜 세월 보존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손상 파괴되는 연약한 재료이기도 하다. 당신은 "짧은 시간 동안 쓸모있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신의 작품이 제작-전시-사용 과정에서 빚어지는 관객과의 접촉-마모- 손상-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작품 완성의 일부로 여김을 뜻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작품을 과정 미술(process art)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
손: 과정 미술에 대한 관념을 명확히 염두에 두고 작업한 것은 아니지만 않았지만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과 설치 작업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나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또 전시중 혹은 나의 작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나는 우연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작품들은 관객들이 직접 만지고 들어가보고 앉아보고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파손 심지어 도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내 작업의 한 부분으로써 눈여겨 본다.

박: 당신은 빠르고 정교한 수작업을 통해서 매 작품을 완성한다. 당신의 작품 제작 과정은 컨셉, 제작, 전시장 내 설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사전 계획과 작품 제작 및 설치 과정중 상황에 따른 변경 및 임기응변적 융통(spontaneity)을 지니는가?
손: 상황에 따른 변경이나 임기응변적 융통력 보다는 주변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작업에 반영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이다. 나에게 주변상황은 골판지와 다음 없이 중요한 재료이다.

박: 미술 작품의 영구성/일회성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손: 제아무리 영구적이라고 하는 재료라 할지언정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작업 속에 담겨 있는 개념이나 생각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남는다. 미술 작업의 물리적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개념은 오래 간다.

"전시가 끝나서 작품 철추를 하던 날, 작업들을 길가에 옮겨두고 차 가지러 간 사이에 파지 수집하시는 할머니가 제 작업을 열심히 본인의 손수레에 실고 있길래 절반은 할머니 드리고 반은 다른 작업에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시할 때 마다 약간의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늘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손한샘 [전시 철거시 폐품 종이 수거 아주머니와의 사진 삽입]

이주은
Landscaping the Contemporary
박:당신은 그동안(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일상 속의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확대하여 초점을 희미하게 처리시킨 사진 작업을 주로 해 왔다. 카메라 매체를 통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이미지 포착에 천착하게 된 동기나 견해는?
이: 나의 작품들의 소재는 사진기에 의해 수집된다. 나의 경우 사진기란 정교한 기술, 조명 기법, 인화소의 전문적인 사진 인화의 결과로 탄생한 사진을 제작하기 보다는 무작위로 찍은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무심코 포착된 평범한 소재들을 발견하여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박: 당신의 사진 작업 방식을 설명해 달라.
이: 사진기로 찍어 수집된 소재들과 그 결과 탄생한 풍경들을 나는 투명 레진과 투명 소재를 이용하여 전환시킨다. 투명 레진과 인화지가 결합하면서 내가 찍은 이미지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스며들거나 화학적인 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예상치 않은 우연적인 시각 효과를 자아낸다. 예컨대, 사진 인화지 위에 실리콘, 에폭시, 또는 아크릴 등을 인화지 표면에 부으면 인화지 표면과 이미지 사이사이로 번지거나 스며들어 재료의 독특한 흔적이 남는다다. 그 결과 내 사진 작품에는 모두 한 꺼풀씩 껍질이 입혀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풍경들이 내 작품의 주인공이다.

내 사진 속의 이미지들은 또렷하게 찍은 사진을 초점을 의도적으로 흐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진의 작고 사소한 일부분을 더 이상 형체를 분명히 알아볼 수 없을 지경까지 컴퓨터로 여러 차례 확대와 확대를 거듭해서 만들어 졌다. 그래서 내 작품은 가까이서 보면 무엇인지 분간이 가지 않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 형상이 드러난다.

박: 풍경화 , 정물화 등 고전적인 미술 장르의 구분이 무의미해져 버린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작품을 풍경화 또는 정물화로 이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나는 일상의 소소한 주변을 오래 관찰하면서 사소한 사물 속으로 빠져드는 환상의 여행 속으로 몰입하곤 한다. 나 자신이 일상적인 사물 속을 거니는 소인 걸리버가 되곤 한다. 예를 들어, 덮고 있는 푸른 이불 위로 보이는 흠집 투성이 흰색 찻잔은 푸른 산 위의 하얀 바위처럼 보이거나 속이 컴컴한 동굴로 보인다. 또 그런가하면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나무 의자의 다리는 어느새 앉는 자의 육중한 체중을 지탱하는 기념비적 기둥이 되기도 한다. 나는 매일 사용하는 수건의 표면에서 하얗게 눈이 쌓인 넓은 들판을 찾아내기도 하고, 한 장의 사진 속에 보이는 세부 속에서 다시 무수한 풍경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보는이마다 자신만의 환상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

박: 당신의 작품 속에는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나 한테 미술의 소재로서 인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주변에 늘 널려있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물들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 미술이 제공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물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되는 작업을 만든다. 의자다리, 전선, 수건, 이불 조각 등등 하찮아 보이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내 사진 작업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상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이다.

박: 당신의 작품 제목은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된 서술형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앞서 말했듯이 나의 소재들은 피사체 전체를 온전하게 찍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과대하게 확대시켜 흐릿하게 만든 이미지들이다. 그리고 나는 작품을 제작할 때 한 편의 풍경화를 만들고 그 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으로 임한다.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수려하고 멋진 풍경 속으로 빨려들어가 그 속을 거닐면 느껴질 듯한 감흥을 제목으로 옮긴다. 그러한 감흥은 한두 명사로 이루다 설명하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문장형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려는게 나의 의도이다.

안세은
Delivery
박: 당신은 과거 다른 작품을 통해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적인 사물들이나 제품 패키징 등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반복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화한 적이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반복적인 상품 포장지 이미지도 그 연장인가?
안: 과거 나의 전시중에서 포춘 쿠기 작업과 비닐 팩에 오브제를 붙였던 작업만이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작품화한 경우였다. 이번 전시에서 사용된 새우깡 포장지의 획일화된 이미지는 현대 사회 속의 가볍고 일회적인 만남이나 타인에 대한 피상적인 태도를 지적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서 채용하게 되었다. '새우깡' 봉지의 겉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Since 1971' 은 나의 탄생년을 담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새우깡은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맛과 포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되었다.

반복은 내 작업에 언제나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이미지의 반복뿐 아니라 행위의 반복, 공간의 반복 등 다른 듯 같은 모습,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나는 이번 작품에서 반복성이 연출하는 강렬한 시각 효과를 의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긴 시간에 거친 반복적인 제작 과정을 통해서 명상적인 평안을 느꼈다.

박: 과거 당신은 관객들이 당신의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작품의 일부를 떼어가게 하도록 하

는 등 미술 작품과 관객 사이의 소통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미술 작품과 관객 사이의 어떤 상호 작용을 노린 것인가?
안: 나의 작품이 내 권한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의 기분은 흥미로왔다.나의 손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작품의 운명은 타인에게 인도된다는 점 때문이다. 나의 관심사는 미술과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이라기 보다는 미술 작품이 매개가 된 나와 타인 사이의 교환 행위였다.

박:당신의 출품작 <배달>은 언뜻 영화 <매트릭스> 속에 등장하는 일련의 번호와 기호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번 당신의 작품들에 담긴 숫자들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안: 숫자가 주는 편리함은 매우 많다.오늘날 온갖 숫자들은 현대인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기호가 되어 버렸다. 나이,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은행 계좌 번호, 학번, 카드 번호, 옷과 신발 사이즈 등 나를 대변해주는 수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이와 전화 번호 같은 숫자의 개입없이 소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숫자를 앞세워서 정체를 감추거나 겉모습이나 그에 딸린 숫자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약싹빠른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다. 내가 새우깡 과자 봉지 위에 일일이 인쇄해 붙인 숫자들은 결혼 기념일, 생일, 집 주소, 학번, 은행 비밀번호 등 나에게 무척 중요한 개인적인 번호들이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며 그들은 그들의 편의대로 필요한 숫자만을 취합하여 나를 판단한다.

박: 그렇다면 당신의 작품과 당신의 '사적 기억'은 불가분의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되나?
안: 그렇다. 이번 전시에서 제시한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숫자들의 묘사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개인적 기억을 작품을 통해 넌지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나의 관심사이다. 사적인 시공간과 기억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공유를 시도해 보고 싶었다.

최원정
Beyond the Horizon
박: 이번 24시간 영업 전에 출품한 <지평선 너머 Beyond the Horizon>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최: 과거 나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오고가는 소모적인 시간, 부재 시간, 진공의 시간을 초현실적으로 전환시킨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24시간"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
태어나 삼십 여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탈출'을 결심케하는 회색의 도시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서울에 사는 현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듯한 각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여의도에 산다. 회사도 많고 빌딩도 사람도 많은 곳이다. 출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나가면 사람들에 부대껴서 제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도 힘들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벌어지는 일도 많은 이곳에서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몇 십분씩 기다려야하고 – 그래서 12시 정시에 점심 외식을 포기한지 오래다 – 버스와 전철은 늘 만원이고, 지하철 공사로 길은 늘 밀리고, 의례 일주일에 이삼일은 국회앞 시위로 새벽부터 시끌댄다. 여튼 낯선 회색빛 도시와 그 안에 가득찬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 그 가운데에 서면 근원을 알 수 없는 군중의 '강박'을 느낀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진지함에 종종 서글픔까지 느낀다.

박: 이번 작품 <지평을 넘어>는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최: 낯선 도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소재로 삼아 드로잉과 사진작업을 한 후 영상으로 제작했다. 반짝거리는 영상 프로젝션이 방 안 정면으로 투사되고 양 옆 벽과 바닥에 조각 거울을 설치했다. 이렇게 하여 벽과 바닥은 거울로 통합되고 관객을 둘러싸는 거울방이 형성된다. 좌우로 공간이 무한히 펴쳐져있는 거울방 안에 선 관객은 어느덧 끊임없이 서로를 비추고 복제하고 있는 거울의 공간 속에서 지각이 론란해 질 정도의 환상적인 감흥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이 없이 펼쳐지는 무한한 거울 속 가상 공간과 전시장의 폐쇄된 실제 공간은 한 방에서 결합되고 관객은 환상적인 탈출감을 경험한다.

박: 작가의 작품 설치에 포함된 거울 타일의 역할은?
최: 거울은 만질수 있는 물리적인 사물이지만 그 속에 투영된 영상은 잡히지 않는다. 디지틀 이미지 역시 기록된 데이터가 재생되어 나타난 화상일 뿐 비물질적이고 만질 수 없는 추상화된 정보이다. 디지털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거울 속에 반사되 이미지는 만져지지 않지만, 디지털 이미지를 반영시키는 거울은 보는이가 물리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해 주는 매

개체 역할을 한다.
박: 이번 24시간 영업 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해 오던 작업에서도 늘 느껴지는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저리(imagery) 연출은 척박한 도시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창조적 승화라고 보인는데?
최: 도시의 불빛처럼 깜박이듯 바쁘게 오가는 도시인들의 모습과 여러장의 거울에 반사된 반짝거리는 영상, 그 속에서 그들이 벼랭 끝에 선 듯한 각박한 인생(life on the edge)을 버티게 하는 찰나적인 희망을 발견하고자 했다.

주영신
Addiction
박: 인체의 해부학적 이미지와 인체 작동 메커니즘에서 이번 작업의 원동력을 찾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주: 내가 인체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기 시작한 때는 대학교 시절부터였다. 초기에는 단지 신체의 겉모습에서 시작했지만 차차 해부학적인 이미지로 관심이 옮겨갔다. 사실 나는 인체의 겉과 속을 넘나들며 그 둘 모두에서 얻은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는다.
처음에는 인체를 모티프로 철학적인 탐색을 시도했지만 나에게 인체란 표현의 목적이기보다는표현을 위한 수단이자 방식임을 깨달았다. 신체는 자연의 일부이며 물질적인 부분이다. 신체는 우리의 정신-영혼(비물질적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동시에 정신을 형성하는 역활을 한다. 인간은 뇌의 지령을 받아 감정을 지각한 후 신체 세포 반응을 유도하고 타인을 향해 표현한다. 역으로 세포는 신체적 경험을 뇌로 전달하여 정신을 형성한다. 우리의 신체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분리할 수 없는 단일적인 존재이다.

박: 자궁의 이미지를 빌어 형상화된 <편안한 쇼핑 되세요>의 무용지물로 형상화된 해먹은 쉬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쉴 곳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소비 공간을 찾아야 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안절부절 못하는 형상에 대한 은유인가?
주: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편안 추구를 위해 소비활동을 한다. 그러나 어느새 그 활동은 소비를 위한 소비가 되고 만다. 편안을 위해하는 소비는 점점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는 더 이상 편안함을 안겨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소비는 더 많은 소비 욕망과 강박으로 내몰고 소비자는 그로 부터 휴식할 공간을 찾아 또다시 소비를 해야한다. 편안함이 목적이던 소비는 이제 육체적이고 정신적 노동을 수반하는 또다른 노동 활동이 되었다.

박: 섹스 다음으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쇼핑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쇼핑은 현대 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당신의 작품 <중독>에 등장하는 심장과 두뇌 이미지는 현대 소비주의 문화를 살고 있는 작가의 자아반영적인 성찰이기도 한가?
주: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일상 속의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소비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활동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여가 활동이기도 하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쇼핑이라는 소비활동을 통해서 잠시나마 심신의 활력을 찾곤 한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는 쇼핑은 마치 사냥감을 시야에 포착한 하이에나와도 같다. 쇼핑에 몰입해 있는 소비자의 촉수는 구매와 소비라는 욕망으로 잔뜩 곤두서 있다.

박: 17세기 데카르트의 심신이분론이 있는가 하면 또 인체의 작동은 오랜 세월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온 두뇌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진화생물학이 최근 과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다. 인체 과학이 점점 각광받게 될 미래에 당신의 미술이 차지할 비중도 커지지 않을까?
주: 미술을 비롯한 모든 예술의 근원은 인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지 시대에 따라 정신과 육체를 설명하는 견해가 변천했을 뿐이다. K. 해리스가 주장한 것처럼 정신과 육체 사이의 우위성 각축에 비유할 수 있는 순환의 원칙이 미술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인간의 신체는 미술의 중심 이슈로 다뤄질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인체의 사회문화적 측면, 의학적인 측면, 질병 등과 같은 주제를 갖고 작업할 것이다.

김형석
Somnabulism
박: 당신은 과거와 현재 줄곧 한국 사회 일상 속서 발견할 수 있는 대중적 특히 키치적 이미지를 작품화시켜 왔다. 이 같은 당신의 전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김: 키치적 이미지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욕망과 무의식이 무척 특이

한 키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적 기호로서 도입했다. 우리 상황에서 고급예술의 세련됨과 깊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키치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위선보다는 위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우리의 키치에는 키치가 동경해야 하는 원본조차 부재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러한 현실을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재현한다는 입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고급예술과 하위문화의 요소들을 뒤섞어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현실 속의 삶의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예술의 세계 사이 거처하는 분열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숙제였다.

요즘은 키치적 작업에 대해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다지 유효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엔 현실이 너무 복잡해졌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보다는 그대로 고착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식상해졌고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키치는 이미 비판적인 맥락을 상실하고 그 자체로 독자적인 미학으로 진화해서 새로운 상품이 되어버렸다.

박: 거리의 상업적 간판, 도로 표지판, 무가 일간지 광고 등에서 볼 수 있는 대중적 미학을 즐겨 활용해 왔는데?
김: 한동안 간판, 네온, 광고이미지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작업들이 대중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어차피 나의 작품은 언제난 전시공간에서 전시된 미술품이었고, 제아무리 익숙하고 친절해 보일지언정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대중적 취향은 더더욱 아니었다. 겉보기에 키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즉물성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삶에 배어있는 관념의 풍경이 바로 내가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박: 이번 24시간 영업 전에서 당신이 출품한 <어서오세요>는 실제로 미술 전시회인지 모르고 충무아트홀에 들어섰던 여러 방문객들을 무의식중에 미술관 전시장 내로 끌어 들이기도 했다.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나? 일반 대중들과의 소통을 염두해 둔 전략이었나? – 그렇다면 실제로 대중 관객은 당신/당신의 작품(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김: 관객들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참여시키고 싶은 것은 아마도 대다수 작가들의 희망일 것이다. 삶과 예술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유토피아적인 기획이겠지만 포기될 순 없는 것 아니겠는가? 어쨌건 현실은 작품을 하는 것도 보는 것도 많은 착각과 오해의 역동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다. 그걸 일일이 컨트롤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별로 현명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뭔가 근본적인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관객과 공유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어서오세요>라는 작품은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 의도된 작품이다. 어두운 도시의 밤, 눈부시게 환한 섬처럼 열려있는 편의점은 마치 종교적인 성소와도 같은 신비한 느낌을 준다. 그곳에서 듣는 '어서오세요'와 '감사합니다'라는 틀에 밖힌 인사는 도시인의 외로운 욕망을 안심시켜준다. 일상의 구원이 24시간 풀가동하는 신비한 공간, 24시간 '편이(convenient)'를 약속하는 환상적인 공간에 VIP의 상징인 레드카펫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세속적이면서도 탈속적으로 보이는 백색 네온의 환영에 끌려 푹신하고 특별해 보이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들어올 관객이 편안감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껴주기를 기대했다.

박: 당신은 개인적인 작품 활동 외에도 여러 다른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예술적 협력 프로젝트도 실행했던 것으로 안다. 그 프로젝트 대하여, 동기와 목표 그리고 거둔 성과에 대하여 얘기해 달라.
김: 애초에 취지는 '이미지밴드'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로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해 보자는 것이었다. 주로 만화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의를 거쳐서 공동작업을 했다. 영화, 미술, 만화라는 장르를 가로질러 보자는 의기투합을 하고 세미나와 워크숍, 작업, 전시 등을 2년 정도 함께 해왔고 지금은 잠시 그룹을 정비하며 숨을 고르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산술적 합을 능가하는 시너지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실제로 개인 작업이 지배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공동작업은 여러모로 쉽지는 않았지만 공동 작업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던 소중한 기회였다.

박: 현대 미술의 기능/역할/사명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삶과 예술의 분리의 철폐,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그래서 특별히 예술가가 필요하지 않는, 적어도 예술로 인한 구분 짓기나 소외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위대한 선언이란 말인가! 누군가 현대미술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눈앞에 보여주는 거울이란 말을 했던 것 같다. 나는 끝없이 질문하는 거울, 진화 된 거울로서의 현대 미술을 꿈꾼다.

Artists Biographies

Hyung-suk Kim

1999 M.F.A. Department of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 B.F.A. Department of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03 Dream – Thickness of Images (Alternative Space Pool Special Invitation Show, Seoul), 2000 Art Takji (Gallery Mano, Seoul), 1999 Purgatory of Image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1998 Light Revelation (In The Gallery, Yangpyong), 1994 Meditation on Cultural Mother Tongue (Yoon Gallery, Seoul)

Group Exhibitions

2007 Open 24 Hours (Chungmu Art Hall, Seoul), 2006 Busan Biennale (Busan City Museum, Busan), Story of a Blinded City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2005 Over-eating (Insa Art Space, Seoul), Engagement (Moran Gallery, Seoul), 2004 Hangeul Dada (Ssamzie Space, Seoul), Parliament Exhibition (Korea Parliament Building Lobby 1st Floor, Seoul), 2003 Cartoon in Art, Art in Cartoon (Ewha Women's University Museum, Seoul), Crystals of Time (Dukwon Gallery, Seoul), Men Resembling Books, Books Resembling Men (Keumho Gallery, Seoul), Small Gifts (Stone and Water Gallery, Anyang), 2002 Engagement (Kukmin University, Seoul), Yewoo Grand Exhibition (Yewon Gallery, Seoul), 2001 Returned Ghost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Hoyang Contemporary Arts Festival (Insan Lake Park Fair Ground, Insan), 2000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New Millennium Exhibition (Seoul Municipal Museum, Seoul), Relay Relay (Insa Art Space, Seoul), Happiness Index Safety Zone (Gallery BoDa, Seoul), Western Arts History (Gongpyung Arts Center, Seoul), 1999 Parking Lot Projects 2 (Art Sonje Center, Seoul), Multiple-choice Answer Sheet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14th Logos and Pathos (Kwanhoon Gallery, Seoul), Film Independence Rights – Cultural Independence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Han-sam Son

2000 M.F.A. New York City University, U. S. A. (Major in Painting, Minor in Plastic Arts), 1996 B.F.A.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05 Room (ISAK, Tronheim, Norway), 2004 Moving Box (Queens Botanical Garden, New York), 2002 Raw (im and iL gallery, Brooklyn, New York), 2000 Vestiges (Paradise Lost Paradise Regained Gallery, Taipei, Taiwan)

Group Exhibitions

2007 Open 24 Hours (Chungmu Art Hall, Seoul), Tongui-dong Miscellany (Gallery KunstDoc, Seoul), Finding From Neverland to Everland (Hongjecheon Project, Seoul), 2006 Rolling Paper (Gallery Zandari, Seoul), 2004 Green Light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New York), Hung Jury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Los Angeles), Project' '04 (Eye Slip Museum, New York), Talking Wall (Marronnier Art Gallery, Korean Cultural Promotion Council, Seoul), 1st Han Yong-jin Art Award Memorial 4 Persons Show (Space Gallery, New York), 2003 100 Years, 100 Dreams (Space World Gallery, New York), Hello Franklin (im and iL Gallery, Brooklyn, New York), 2002 20/20 (Rotunda Gallery, New York), Mixed Media Works (Courthouse Gallery, New York), 2001 A Collaborative Fusion (450 Broadway Gallery, New York), Form (Korea Cultural Center New York, New York), Lost and Found: Reclaimed Moments (Rotunda Gallery, New York), 2000 2 far 2 close (Asian American Art Center, New York), Neo (Exit Art Gallery, New York), Pieces 4 (Gallery 128, New York), New York Area MFA Exhibition (Hunter College Square Gallery, New York)

Awards and Residencies
2005 UNESCO-Ar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 Artists Residency in Bergen, Norway, 2004 Runner up Award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QCAF Awards New York City Public Art Award (Queens Council of the Arts)

Se-eun An

2000 M.F.A. in New Forms, Pratt Institute, New York, 1996 M.F.A. Department of Painting, Ewha Wome's University, 1994 B.F.A. Department of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05 Where am I? (Sponsored by Korea Arts Council) (UN Center, Vienna, Austria), 2001 Perfect World (Keumsan Gallery, Seoul), 2000 Perfect World (Steuben East Gallery, Pratt Institute, New York), 1996 Creating the World (Gallery Icon, Special Exhibition for Young Artists, Seoul)

Group Exhibitions
2007 Open 24 Hours (Chungmu Art Hall, Seoul), Relaxation (Pizza and Wine, Seoul), 2006 Trifling Moment (Space Beam, Incheon), Looking at Sound (Space HaaM, Seoul), 2004 29th Annual Open Show (Roseville Arts Center, California), Print Box 2004 (Gallery Okubo, Fukuoka), 2003 Cultural Narratives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Where are you? (Korea Arts Council, Seoul), 2002 Super Market Museum (Sungkok Art Museum, Seoul), Reflection & Refraction (Gallery BoDa, Seoul), Nature: Human, Sky, Earth (Gallery Godo, Seoul), 2001 Dis.Embody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Command P (Sagan Gallery, Seoul), All Media 3 (Period Gallery, Nebraska, U.S.A.), Something or Nothing (Gallery There's, Seoul), 2000 Reflection & Refraction (New Century Artists, New York), Pratt Show 2000 (Manhattan Center, New York), Shadow & Dreams (Rosenthal Gallery,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Super Body, Super Mind, Super World (Gallery BoDa, Seoul), THRU-THE-BOOK (Gallery There's, Seoul), 1999 Ewha, Action, Vision (Seoul Arts Center, Seoul), Confluence of Culture (Schafler Gallery, New York), On the Blink of the Millennium (V Gallery, New York)

Awards
2005 Korea Arts Council Sponsorship for Young Artists

Joo-eun Lee

1996 B.F.A. Department of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1993 M.F.A. Department of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07 Gazing (Gallery Biim, Seoul), 2004 Striking a Conversation (Gallery Gaia, Kwanhoon Gallery, Seoul), 2003 On the Floor (Hanjun Plaza Gallery, KOSID, Seoul), 2001 Imitation PHOONG (Gallery Mano, Seoul), 1999 The PHOONG (Gallery, BoDa, Seoul), 1997 Private Possession (Kwanhoon Gallery, Seoul), 1996 Containing, Confining, Puzzling (Yoon Gallery, Seoul)

Group Exhibitions
2007 Open 24 Hours (Chungmu Art Hall, Seoul), 2006 SEO FACTORY- New Idea (Seo Gallery, Seoul), 2005 Livre Objet 2005 (Hwanki Art Museum, Seoul), Inter-Spaces (Ewha Art Center, Seoul), Art Project in DECOYA-Space of Seduction (Living DECOYA, Seoul), If Pandora's Box were Transparent (Women's Medi Hostpital Gallery, Seoul), 2004 Cross Over (Seo Gallery, Seoul)
MANIF Seoul International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Standard Deviation (Ewha Art Center, Seoul), Story & Story (Gallery Art N I, Seoul), 2003 With (Insa Art Center, Seoul), Kinsfolk Handicraft (Kwanhoon Gallery, Seoul), Entre Paris et Seoul (Galerie Paris Beaubourg, Paris), 2002 Reflection & Refraction (Gallery BoDa, Seoul), Supermarket Museum (Sungkok Museum, Seoul), [hauziz] (Gallery Daim, Seoul), 2001 Something or Nothing I (Gallery Chang, Seoul), Something or

Nothing II (Gallery There's, Seoul), Commend P (Gallery Sagan, Seoul), 2000 21st Century Intellect and Emotion (Seoul Arts Center, Seoul)
THRU-THE BOOK (Gallery There's, Seoul)

Awards
2004 Award of Excellence, Joong-ang Fine Art Prize, 2004/2002 Contemporary Print Art Competition, 1998/2000/2002 Joong-ang Fine Art Prize

Byung-wang Cho

2000 M.F.A. Pratt Institute, Brooklyn, New York, 1992 B.F.A. Department of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07 FLAT (Keumho Art Museum, Seoul), Geometric Knife Drawing 07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Gyonggi-do), 2005 Boxes in Eyes, Eyes in Boxes (Space Sadi Window Gallery, Seoul), 2004 Geometric Knife drawing 04, (White Columns, New York), Knife Drawing I (Seoul Arts Center, Seoul), Knife Drawing II (White Columns, New York/KFAF, Seoul Arts Center, Seoul), 2003 2-Dimensional Spatial Drawing II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2001 Electrification, (im n iL Gallery, Brooklyn), 2000 2-Dimensional Spatial Drawing I, (PS Gallery, Brooklyn, New York)

Group Exhibitions
2007 Seoul International Photography and Print Festival (Seoul Arts Center, Seoul), 'Esperanto' (BRICK 5, Vienna, Austria),
Art Auction in Seoul (COEX Convention Hall, Seoul), Open 24 Hours (Chungmu Art Hall, Seoul),7th Songeun Art Award Exhibition (Insa Art Center, Seoul), Up and Comers (Keumho Art Museum, Seoul), Striking Space (Gyeonggido Museum of Art, Ansan), 2006 Art OMI International Residency Open studio (Ghent, NY), Blame it on Rio (White Box, New York, NY), 2006 Sleep - Culture of Sleep Depot Dortmund – International Art Project (Dortmund, Germany), Benefit Auction for NYFA (White Box, New York), 2005 Alchemy of Daily Life (Christchurch Art Gallery, New Zealand), Elevator II/ Place & Temptation (Hyundai Department Store, Seoul), 2004 Kimi for You 2004 (Kimi Art, Seoul), From Alice (Marronnier Art Center, The Korean Cultural & Art Center Foundation, Seoul), Alchemy of Daily Life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My Kimi I, Spirit (Kimi Art, Seoul), 2003 Open Your Eyes (Marronnier Art Center, Korean Cultural & Art Foundation, Seoul), 2003 Benefit Raffle (Momenta Art & White Columns, New York), Business Card Exhibition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Hello Franklyn (im n iL Gallery, Brooklyn, New York), 2002 Human Recharger (Asian American Arts Center, New York), 8th Annual Benefit Raffle (PS 122, New York), Beauty of Diversity (Seoul Arts Center, Seoul), Lucky Draw (Deitch Project, New York), 2001 Interval (Sculpture Center, Long Island City, New York), Artist in the Marketplace 21 Exhibition (The Bronx Museum of the Arts, Bronx, New York), A Collaborative Fusion (450 Broadway Gallery, New York), Korean Contemporary Artists in New York (Korean Association of New York, New York), Abortion on the Ground 31 (Space World, Brooklyn, New York), Light (Gallery Korea,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Out of Hibernation (im n iL Gallery, Brooklyn, New York), 2000 2 Far 2 Close (Asian American Arts Center, New York), Super Body, Super Mind, Super World (BoDa Gallery, Seoul), 1999 Confluence of Culture (Pratt Manhattan Gallery, New York)

Fellowships and Residencies
2006 Art OMI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Maine, New York, 2002 Sculpture Space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November-December), Utica, New York, 2001 Gregory Millard Fellow The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Fellowship, New York, 2001 Artist in the Marketplace (AIM21), Bronx Museum of the Arts, Bronx, New York

Young-shin Joo

1998 B.F.A. Department of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Major in Print), 1996 M.F.A. Department of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1999 Geumsan Gallery, Seoul

Group Exhibitions
2005 Box (Lotte Gallery, Anyang), 2004 Print Box (Gallery Okubo, Fukuoka, Japan), 2003 Where Are You? (Korea Arts Council, Seoul), Imagination Library (Stone & Water, Anyang), Chaerim Show (Kwanhoon Gallery, Seoul), 2002 Reflection & Refraction (Gallery BoDa, Seoul), Supermarket Museum (Sungkok Art Museum), International Contemporary Print Art (Sungsan Art Hall, Changwon), Print Box (Gallery Daim, Gallery There's, Seoul), Command P (Gallery Sagan, Seoul), 2000 THRU the BOOK (There's Gallery, Seoul), 1999 Plus-Print Show (Kwanhoon Gallery, Seoul), 99 EWHA/ACTION/VISION (Seoul Arts Center, Seoul), Icheon 2000 Factory Arts Festival (Icheon Sam-ae Factory)

Awards
1998 Donga Art Festival (Korea National Contemporary Art Museum, Seoul), 20th Joongang Fine Art Festival (Ho Am Gallery, Seoul), 16th Korea Art Priz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Art Museum, Seoul) First Prize, 17th Korea Contemporary Print Art Competition (Korea Arts Council Exhibition Hall)

Won-jung Choi

2001 M.F.A.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 U.S.A. (Major: Art & Technology), 1999 M.F.A. Department of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1997 B.F.A. Department of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06 Green Door (Gallery DOS, Seoul), 2002 Drawing Invisible (Gallery Fish, Seoul)

Group Exhibitions
2007 Open 24 Hours (Chungmu Art Hall, Seoul), A Complex (Sungkok Art Museum, Seoul), Dorothy's Red Shoes (Insa Art Center, Seoul), 2006 Trifling Moment (Space Biim, Seoul), Dual Realities, Media City Seoul 2006 Media Art Biennale (Seoul Museum of Art, Seoul), Drawing-Space : Dialogue to Space, (Chungmu Art Hall/Gallery DOS, Seoul), Weird Invitation (Gallery Skape, Seoul), Wall_A Story behind That (Gallery Zandari, Seoul), The Way of Viewing Object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5 In-between Space (Gallery DOS, Ewha Women's University Art Museum, Seoul),Media on the F-String (Ewha Women's University Art Museum, Seoul), 2004 Standard Deviation (Ewha Women's University Art Museum, Seoul), Alternative Realities (Ewha Women's University Art Museum, Seoul), Visual Eden (My Art Gallery, Seoul), 2003 Crystals of Time: Korea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Dukwon Gallery, Seoul), Healing Hand (Ewha Women's University Art Museum, Seoul), Thirties (Marronnier Art Museum, Korea Arts Council, Seoul), 2001 Transspace Obsession (1926 Exhibition Studies Space, Chicago, Il), Tactile Drawing (Gallery 2, Chicago, Il), Materialspace (Clune Construction Company, Chicago, Il), 1998 Seece: Language (BoDa Gallery, Seoul), Gong.Mo.Jeon Compet.ti.tion (Dukwon Gallery, Seoul)

Curator's Vita

Jina Park

1998 M.A. Department of History of Art, Graduate School, Hong Ik University, Seoul
1993 B.A. Department of Sociology, School of Liberal Arts, Yonsei University, Seoul
2001 – 2007 Art critic/columnist based in Vienna, Austria and Seoul, Korea, Vienna editor of Contemporary Magazine (UK), Vienna art correspondent of Wolgan Misool, Monthly Design and others (Korea), Writer for artnet.com® magazine (US), 2000 Peggy Guggenheim Collection in Venice, Italy, 1999 Research assistant for "MOMA 2000" and "Gerhard Richter Retrospectiv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98 Researcher for "George Catlin and His Indian Gallery" exhibition,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2000, 1996-1998 Editor, Monthly Design, Design House, LTD., Seoul, 1994-1997 Staff Editor, Newsweek Korea, Joongang Daily Newspaper, Seoul

김 형 석

1999서울대학교 서양화과 대학원 석사 졸업, 1993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03 꿈–이미지의 두께 (대안공간 풀 기획초대전, 서울), 2000 아트딱지 (갤러리 마노기획전, 서울), 1999 이미지의 연옥 (대안공간 풀, 서울), 1998 가벼운 묵시록 (인더갤러리 기획, 양평), 1994 문화적 모국어에 대한 단상 (윤갤러리 기획, 서울)

단체전
2007 24시간 영업 (충무아트홀, 서울), 2006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눈먼 도시 이야기 (대안공간 풀, 서울), 2005 폭식 (인사미술공간, 서울), 앙가쥬망전 (모란갤러리, 서울), 2004 한글다다 (쌈지스페이스, 서울), 국회전시회 (국회의원회관 1 층 로비, 서울), 2003 미술속의 만화, 만화속의 미술 (이화여대박물관, 서울), 시간의 결정전 (덕원갤러리, 서울), 책을 닮은 사람, 사람을 닮은 책전 (금호갤러리, 서울), 작은선물전 (스톤앤 워터 갤러리, 안양), 2002 앙가쥬망전 (국민대, 동국대 갤러리, 서울), 예우대전 (예원갤러리, 서울), 2001 돌아온 유령전 (대안공간 풀, 서울), 고양현대미술제 (일산 호수공원 박람회장, 일산), 2000 서울대와 새천년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릴레이 릴레이전 (인사미술공간, 서울), 행복도안전 (보다갤러리, 서울), 서양미술사전 (공평아트센타, 서울), 1999 주차장프로젝트 2 (아트선재센터, 서울), 사지선답전 (대안공간 풀, 서울), 제 14 회 로고스와 파토스전 (관훈갤러리, 서울), 영화주권 – 문화독립전 (대안공간 풀, 서울)

손 한 샘

2000 뉴욕시립대 미술대학원 석사 졸업 (회화 전공, 조소 부전공), 1996 세종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05 Room (ISAK , 트론하임 노르웨이), 2004 Moving Box (퀸즈 보태니칼 가든, 뉴욕), 2002 Raw (임엔일 갤러리, 뉴욕), 2000 Vestiges (실락원 아트 스페이스, 타이페이, 타이완)

단체전
2007 24시간 영업 (충무아트홀, 서울), Finding From Neverland to Everland –도시 얼굴 만들기 (홍제천 프로젝트, 서울), Rolling paper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04 Green Light (뉴욕 한국 문화원, 뉴욕), Hung Jury (로스 엔젤레스 한국 문화원, 로스 엔젤레스), Project'04 (아이슬립 미술관, 뉴욕), 이야기하는 벽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2002 20/02 (로툰다 갤러리, 뉴욕), Mixed media Works (코트하우스 갤러리, 뉴욕), 2001 A Collaborative Fusion (450 브로드웨이 갤러리, 뉴욕), Form (뉴욕 한국 문화원, 뉴욕), Out of Hibernation (임엔일 갤러리, 뉴욕), Lost and Found: Reclaimed Moments (로툰다 갤러리, 뉴욕), 2000 2 far 2 close (아시안 아메리칸 아트센터, 뉴욕), Neo (Exit Art 갤러리, 뉴욕), Pieces 4 (갤러리 128, 뉴욕), 뉴욕지역 MFA 전 (헌터 칼리지 스퀘어 갤러리, 뉴욕)

수상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7 하대리 여름숲속미술제 열린작업실 QuARTerS 프로그램
2006 쿤스트독 미술연구소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서울)
2005 유네스코 (UNESCO) 작가 지원 프로그램 노르웨이 입주작가 (트론하임, 노르웨이)
2004 Runner up 상 (로스 엔젤레스 한국 문화원, 로스앤젤레스), QCAF Awards 뉴욕시 공공미술분야 작가 지원상 (퀸즈 예술 위원회, 뉴욕)

안 세 은

2000 뉴욕 프랜 인스티튜트 뉴폼 전공 석사 졸업, 199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졸업, 1994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05 Where am I? (유엔 센터, 오스트리아 빈), 2001 Perfect World (갤러리 금산, 서울), 2000 Perfect World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스토이벤 이스트 갤러리), 1996 세상 만들기 (갤러리 이콘 젊은 작가 기획전, 서울)

단체전
2007 24시간 영업 – life on the edge (충무아트홀, 서울), 휴식 (피자 앤 와인, 서울), 2006사소한 순간 (스페이스 빔, 인천), 소리 보기 (스페이스 함, 서울), 2004 제29회 애뉴얼 오픈 쇼 (로즈빌 아츠 센터, 캘리포니아), Print Box 2004 (Gallery Okubo, Fukuoka), 2003 Cultural Narratives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Where are you? (문예진흥원 미술관, 서울), 2002 슈퍼마켓 뮤지엄 (성곡미술관, 서울), 녹음방초 분기탱천 선정 초대전 Reflection & Refraction (갤러리 보다, 서울), Nature: Human, Sky, Earth (갤러리 고도, 서울), 2001 Dis.Embody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Command P (사간 갤러리, 서울), All Media 3 (Period Gallery, Nebraska), Something or Nothing (갤러리 There's, 서울), 2000 Reflection & Refraction (New Century Artists, New York), Pratt Show 2000 (Manhattan Center, New York), Shadows & Dreams (Rosenthal Gallery,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녹음방초 분기탱천 선정 초대전 슈퍼 바디, 슈퍼 마인드, 슈퍼 월드 (갤러리 보다, 서울), THRU-THE BOOK (Gallery There's, 서울), 1999 Ewha, Action, Vision (예술의 전당, 서울), Confluence of Culture (Schafler Gallery, New York), On the Blink of the Millennium (V Gallery, New York)

수상
2005 문예진흥원 젊은예술가 지원

이 주 은

199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3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07 바라보다 (갤러리빔, 서울), 2004 이야기를 걸다 (갤러리 가이아, 관훈 갤러리,서울), 2003 On the Floor (한전 플라자 갤러리, 서울), 2001 Imitation PHOONG (갤러리 마노, 서울), 1999 The PHOONG (갤러리 보다, 서울), 1997 개인 小使 (관훈 갤러리, 서울), 1996 담아두기/가두기/ Puzzle (윤갤러리, 서울)

단체전
2007 24시간 영업 (충무아트홀, 서울)2006 SEO FACTORY-New Idea (세오갤러리, 서울), 2005 Livre Objet 2005 (환기미술관, 서울), Inter-Spaces (이화아트센타, 서울), Art Project in DECOYA-매혹의 공간 (Living DECOYA, 서울), 판도라의 상자가 투명하다면 (메이산부인과, 서울), 2004 Cross Over (갤러리 세오, 서울),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예술의전당, 서울), Standard Deviation (이화아트센타, 서울), Story & Story (갤러리 Art N I, 서울), 2003 With (인사아트센타, 서울), 가내수공업(관훈갤러리, 서울), Entre Paris et Seoul (Galerie Paris Beaubourg, Paris), 2002 녹음방초 분기탱천 선정 초대전Reflection & Refraction (갤러리 보다, 서울), 슈퍼마켓 뮤지엄(성곡미술관, 서울), [hauziz] (갤러리 다임, 서울), 2001 Something or Nothing (갤러리 창, 서울), Something or Nothing (갤러리 There's, 서울), Commend P (갤러리 사간, 서울), 2000 21 세기 지성과 감성 (예술의 전당, 서울), THRU-THE BOOK (갤러리 There's 서울)

수상
2004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2002/2004 현대판화 공모전, 1998/2000/2002 중앙미술대전

조 병 왕
2000 프랫 인스티튜트대학원 졸업, 브룩클린, 뉴욕 199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07 FLAT (금호 미술관,서울) ,기하학적 칼 드로잉 07(영은 미술관, 서울), 2004 칼 드로잉 II (화이트 컬럼, 뉴욕) 칼 드로잉 I (예술의 전당, 서울), 2003 2 차원적 공간 드로잉 II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01 충전 (임 앤 일 갤러리, 뉴욕), 2 차원적 공간 드로잉 I (피에스 갤러리, 뉴욕)

단체전
2007예술의 전당, 서울 국제 사진, 판화제 , BRICK 5, Esperanto, Vienna, Austria, 코엑스 컨벤션홀, Art Auction in Seoul, 24시간 영업(충무아트홀, 서울), 제 7회 송은미술대상전(인사아트센터, 서울), Up and Comers(금호미술관,서울), 공간을 치다(경기도 미술관), 2006 아트 오마이 국제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뉴욕 겐트), 'Blame it on Rio''(화이트 박스, 뉴욕), 2006디펏 도르트문드 dormART인터내셔날 아트 프로젝트 (Sleep - Culture of Sleep, 독일), 2005 Alchemy of Daily Life (크라이스트 처치 갤러리, 뉴질랜드), 2004 Kimi for you 2004 (갤러리 키미, 서울), From Alice (문예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 소 갤러리, 서울), 엘리베이터 I (작업공간 열어보기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일상의 연금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3 발견 2003: 오픈 유어 아이즈 (문예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 기획, 서울) 2003 Benefit Raffle (모멘타 아트 & 화이트 컬럼, 뉴욕), Hello Franklin (임 앤 일 갤러리, 뉴욕), 2002 Installation Performance by Byungwang cho (뉴욕 아시안 아메리칸 아트 센터, 뉴욕), 8th Annual Benefit Raffle (피에스 122, 뉴욕), 제 1 회 청년작가 전: Beauty of Diversity (예술의 전당, 서울), Lucky Draw (다이치 프로젝트, 뉴욕), 2001 Interval (스켈프춰 센터 기획전, 뉴욕), Artist in the Marketplace 21 Exhibition (브롱스 뮤지엄 기획전, 뉴욕), A collaborative Fusion (450 브로드웨이 갤러리, 뉴욕), Out of Hibernation (임 앤 일 갤러리, 뉴욕), Light (뉴욕 갤러리 코리아, 한국문화원, 뉴욕), 2000 2 Far 2 Close (아시안 아메리컨 아트 센터 기획전, 뉴욕), 녹음방초 분기탱천 선정 초대전 슈퍼 바디, 슈퍼 마인드, 슈퍼 월드 (갤러리 보다, 서울)

수상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7FLAT, NArT 2007 선정 (서울문화재단,서울), 제 7회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 (송은문화재단, 서울), 2006 24시간 영업, 시민문예진흥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2002 스컬프춰 스페이스 국제 아티스트 입주 프로그램 (뉴욕), 2001 아티스트 인더 마켓 플레이스, 브롱스 박물관 국제 아티스트 입주 프로그램 (뉴욕), 뉴욕 예술문화재단그레고리 밀라드 펠로우쉽 수상 (뉴욕), 2000 제 4회 갤러리 보다 그룹공모전, 녹음방초 분기탱천 선정 슈퍼 바디, 슈퍼 마인드, 슈퍼 월드

주 영 신
199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판화전공), 1996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1999 금산갤러리 (서울)

단체전
2007 24시간 영업 – life on the edge (충무아트홀, 서울), 소리보기전(스페이스 함, 서울), 휴식전 (피자 앤 와인, 서울), 2006 Trifling Moment (스페이스 빔, 인천), 2005 Box (롯데 갤러리, 안양), 2004 Print Box (Gallery Okubo, Fukuoka, Japan), 2003 Where are you? (문예진흥원 미술관, 서울), 상상도서관 (Stone & Water, 안양), 채림전(관훈갤러리, 서울), 2002 녹음방초 분기탱천 선정 초대전 Reflection & Refraction (갤러리 보다, 서울), 슈퍼마켓 뮤지엄(성곡미술관, 서울), 국제 현대 판화전 (성산아트홀, 창원), Change and Border (Japan, Oita, Nakatsue), Colorfull! Powerfull! (인사아트센터, 서울), E-media (갤러리 피쉬, 서울), Print Box 2002 (Visual Gallery Go-Do, 서울), 2001 갤러리 창 기획 공모전 (갤러리창, 서울), Something or Nothing (갤러리 There's, 서울), Print Box (Gallery Daim, 갤러리 There's, 서울), Command P (갤러리 사간, 서울), 2000 THRU the BOOK(갤

러리 There's, 서울), 1999 Plus-Print 전 (관훈갤러리, 서울), EWHA_ ACTION _ VISION (예술의 전당, 서울), 이천 2000 공장미술제 (이천삼애공장)

수상
1998동아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제 20 회 중앙미술대전 (호암갤러리), 제 16 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 미술관), 제 17 회 한국현대판화공모전 (특선, 한국문예진흥미술회관)

최 원 정
2001 스쿨 오브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미술학 석사 (아트 앤 테크놀러지 전공, 일리노이),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7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06 녹색의 문 (갤러리 DOS, 서울), 2002 Drawing Invisible (갤러리 피쉬, 서울)

단체전
2007 24시간 영업 (충무아트홀, 서울), A Complex (성곡 미술관, 서울), 도로시의 빨간 구두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6 사소한 순간 Trifling Moment (스페이스 빔, 서울) , Dual Realities, 미디어시티 2006 서울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드로잉-공간 Dialogue to Space, (충무 갤러리, 갤러리 도스, 서울), 이상한 초대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벽_그 너머의 이야기 (갤러리 잔다리, 서울), 사물 시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5 사이 공간 (갤러리 DOS,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관, 서울), F 선상의 미디어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관,서울), 2004 Standard Deviation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관, 서울), Alternative Realities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관, 서울), Virtual Eden (마이 아트 갤러리 기획전, 서울), 2003 시간의 결정 (대학미술협의회 신진작가 기획전, 덕원 갤러리, 서울), 치유의 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관, 서울), 삼십(Thirties) (문예 진흥원 기획전, 마로니에 미술관, 서울), 2001년 Transspace Obsession (1926 Exhibition Studies Space, Chicago, IL), Tactile Drawing (Gallery 2, Chicago, IL),Materialspace (Clune Construction Company, Chicago, IL), 1998 Seece: 말 (보다 갤러리, 서울), 공.모.전 (덕원 갤러리, 서울)

전시 기획자 약력
박 진 아
1998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1993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학사 졸업
2000년 – 2007 오스트리아 빈 거주/ 미술 비평 <월간미술> 월간<디자인> <오뜨> 등 국내 미술/디자인 전문지 통신원 및 컬럼니스트로 미술 평론문 기고, Contemporary Magazine (영국) 의 빈 에디터, 2000 이탈리아 베니스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Peggy Guggenheim Collection Venice 운영위원, 1999 뉴욕 Museum of Modern Art 'MoMA2000'과 '게르하르트 리히터 회고전 Gerhard Richter Retrospectives' 기획 연구원, 1998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National Museum of American Art, The 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죠지 캐틀린(George Catlin)과 인디언 갤러리' 전시 인턴, 1998–1996 디자인하우스 원간 디자인 객원 기자, 1994–1997 한국 <뉴스위크> Newsweek Korea 뉴스 제작위원

한솔 인력

(제 등 록 2003-17)

[신실분·일하실분]

일당인부

765·5133

건설인력

“전시가 끝나서 작품 절추를 하던 날, 작업들을 길가에 옮겨두고 차 가지러 간 사이에 파지 수집하시는 할머니가 제 작업을 열심히 본인의 손수레에 실고 있길래 절반은 할머니 드리고 반은 다른 작업에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시할 때 마다 약간의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늘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시 철거시 폐품 종이 수거 아주머니와의 사진] 사진: 손한샘

광장음악회
참여할 수 있는 열린무대입니다
2230-6646
www.cmah.or.kr

Exhibition Concept & Catalogue Text: Jina Park
전시 기획 및 카탈로그 텍스트 편집: 박진아

Special thanks to the artists of the exhibition.
이 전시에 참가한 7인의 미술인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This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OPEN 24 HOURS with the support of the Seoul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Design: Mario Gagliardi

이 카탈로그는 2007년 (재)서울문화재단 시민문예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열린 <24시간 영업 OPEN 24 HOURS> 전을 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24시간 영업 OPEN 24 HOURS
서울 충무 아트홀갤러리 Chungmu Art Hall Gallery
2007년 9월6일 – 20일 September 6th-20th, 2007

http://open24hours.kr

http://open24hours.kr